

석사학위논문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한
도예교육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강민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고복연

2006년 8월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한 도예교육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강 민 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고복연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국문초록>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한 도예교육에 관한 연구

고 복 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지도교수 강 민 석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외부세계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연령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미술 교육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특히 언어발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아들에게 미술교육은 교과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정서적·인지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자기표현과 창의력 및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사 표현의 매체가 된다. 또한 치료적인 접근을 함께함으로써 불편한 손의 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끌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아들에게는 그들의 특성에 맞는 표현 방법과 내용, 재료의 체험을 통하여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미술활동이 필요하다.

미술과 교육과정의 하나인 도예활동은 본능적인 표현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고 그들의 내적인 세계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어 자아 중심에서 표현되는 조형 활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감각·운동기능 발달을 통한 신체적 능력을 신장시키기에 적합하며, 점토라는 천연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심성을 자연친화적으로 이끌 수 있어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표현의 즐거움과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의집중 및 인지력 향상과 창의적인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흙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통하여 정신지체아들이 자신의 생

* 본 논문은 2006년 5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여 그들의 표현력을 북돋아 주고, 완성된 작품을 통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완성한 작품의 제작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충분히 되살릴 수 있도록 하여 또 다른 표현의 동기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이 제시한 연구의 결과로 본 연구자가 선정한 수업모형을 실제로 지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학생들은 점토를 만지고 두드리고 주무르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긴장이 완화 되고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보였다. 또한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근육의 발달을 촉진시켜 신체의 각 부분의 조화로운 발달을 가져왔다.

둘째, 각자의 개성에 맞는 표현 방법을 찾아 지도한 결과 처음에는 표현력이 미흡한 학생들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수업에 흥미를 느껴 집중력 향상되었다.

셋째, 가장 기초적인 기법부터 조형 활동을 체험하면서 점토에 대한 친근감이 조성되었고 도예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 및 사물에 대한 개념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주제에 따른 작품제작은 표현 욕구를 증가시켜 조형감각 및 창의적인 자기 표현력이 신장을 가져왔다.

다섯째, 흙으로 빚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도자 작품은 부서지거나 깨지기 쉬워 보관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통해 명확하게 도출된 것은, 일반아동들에게 적합한 교수 방법은 장애 아동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장애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생의 능력에 맞도록 개별화된 수업을 통해 그들의 개념, 상상, 생각, 관찰, 느낌 등이 제한 없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II. 도예교육의 이론적 배경	4
1. 도예의 조형적 특징	4
2. 도예교육의 방법	12
III.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한 도예교육	24
1. 정신지체의 특성	24
2.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	31
3. 정신지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예 교육과정	45
IV. 결 론	66
참고문헌	69
Abstract	72
부 록	75

표 목 차

표 1. 도예활동 과정 안	47
표 2. 도예활동 과정 안	48
표 3. 도예활동 과정 안	50
표 4. 다양한 수업 모형	51
표 5. 도예활동 과정 안	52
표 6. 도예활동 과정 안	54
표 7. 다양한 수업모형	55
표 8. 도예활동 과정 안	56
표 9. 다양한 수업 모형	57
표 10. 도예활동 과정 안	58
표 11. 다양한 수업모형	59
표 12. 도예활동 과정 안	60
표 13. 다양한 수업모형	62

그림 목 차

그림 1. 빗어서 만들기	14
그림 2. 말아 쌓아 만들기	15
그림 3. 판 붙여 만들기	16
그림 4. 파내어 만들기	16
그림 5. 선각 병	18
그림 6. 연어도 장식 접시	18
그림 7. 큰 접시	18
그림 8. 리듬체조	36
그림 9. 결혼식	36
그림 10. 신나는 우주여행	37
그림 11. 어젯밤 꿈	37
그림 12. 우리엄마	38
그림 13. 바닷가에서	38
그림 14. 우리가족	38
그림 15. 즐거운 소풍	38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아들은 그들 자신이 장애로 인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갈등과 좌절에 부딪힌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렵고 교과중심의 학습에서 성공해 본 경험이 적다는 것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장애이다.

이러한 장애아동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미술활동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활동 중 하나이며,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표현의 매체가 된다.

이처럼 장애아들에게 미술활동은 표현능력 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효과를 가져와 위축되거나 비사회적인 행동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중 우리가 자주 접하고 친근감 있는 흙을 이용한 도예 활동은 다른 재료보다 다루기 쉬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반영하고 발산할 수 있어 개인의 인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흙을 주무르고, 만지면서 느끼는 부드러운 촉감과 자유로운 형태 변화는 학습자의 자연성을 개발시켜주며 폭 넓은 표현 활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창의적인 조형 활동을 경험하게 해준다. 또한 “점토는 소근육 운동과 조형감각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서적 안정을 가능케 하며 누구나 쉽게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좌절감 보다는 성취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¹⁾

나아가 불의 효능이 더해져서 새롭게 탄생되는 도자기 작품은 매우 신비로운

1) 엽태진(1986), 「유아교육을 위한 창작 공예」, 창지사, pp. 119~120.

경험을 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준다. 또한 자신이 만든 작품을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은 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할 수 있기에 장애아동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

최근에는 수채화 물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안료와 도예용 세라믹 펜, 붓으로 칠하는 유약, 여러 종류의 점토 등, 도예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재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없더라도 누구나 생활도자기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예활동은 정인지체아들에게 지적 기능을 강조한 인지적 교육과는 달리 찰흙놀이에서 시작되는 감각적·체험적 학습방법으로, 흙을 마음껏 만지며 기쁨을 느끼고, 활동에 열중하면서 표현의 즐거움과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도예를 정인지체아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도한다면, 감각·운동기능의 발달과 함께 주의집중력 과 인지력 및 창의적인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인지체아들에게 도예활동의 다양한 재료와 도구, 보조물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기표현을 위한 폭넓은 기회를 줄 수 있어 창의적인 도예 작품제작이 가능하며 작품의 완성을 통하여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잦은 실패와 학습된 무기력으로 표현의 곤란을 겪는 정인지체아들에게 도예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내면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여 그들의 표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해 주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그에 따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예의 제작 및 성형 기법을 알아보고 정인지체아에게 가능한 실제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도예 활동이 정인지체아의 창의적인 표현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도예 활동이 정인지체아의 조형능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도내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Y학교 고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도예부 학생 12명과, 평소 도예활동에 흥미를 보이는 학생 12명을 선정하였다.

2) 도예활동 과정 안 구성

본 연구의 과정 안은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점토표현에 대한 이해와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토대로 미술 교육에 있어서 도예 교육의 교육적인 가치와 도예교육을 통한 조형능력 및 자기표현력 신장을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특수학교 7차 교육과정 중 예능과에 수록된 찰흙단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찰흙단원 및 특수학교 공예도서의 도자기 공예 부분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적합한 도예활동 과정 안을 구안하였다.

Ⅱ. 도예교육의 이론적 배경

1. 도예의 조형적 특징

1) 조형 표현적 측면

태고부터 시작된 인간의 창작 활동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인간은 표현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정신력을 순화 성장시키며 내부의 갈등, 감정이 해소 발산되어 정서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어지므로 정신건강에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고 외부세계로부터 사물에 대한 인식을 아름답게 해주는 지적 도야에 의의가 있으며, 인간의 마음을 풍부하게 길러주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²⁾

특히 어렸을 적 “모래나 땅을 파고 성을 쌓고 모으고 둥그렇게 만드는 작업에 열중 하는 것, 나무토막에 못질하고 진흙을 두드리며 땀범벅이 되어 노는 것은 활동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러한 활동의 반복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감을 얻는 조형 욕구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

“보거나, 만지거나, 주무르거나 하는 ‘만드는’ 일은 결국 무언가 기존의 물건이나 환경을 변형, 파괴, 재구성 하는 사이에 진행되어 간다. 이와 같은 조형 활동은 재료에 대한 경험과 기능,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는 조형 의식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다.”⁴⁾

미적체험의 특성에서 물질과의 직접교감을 강조하고 있는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적인 유형에 의해서 보고 있다.”⁵⁾ 고 말하면서 습관적인 틀을 벗어버리고 자연과 직접적으

2) 김 정(1979), 「유아의 묘화 분석」, 백목출판사, p.37.

3) 홍혜자(1987), “유아의 그리기 및 찰흙 활동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4.

4) 김춘일 외(1996), 「재미있는 조형 놀이」, 미진사, p.33.

5) 임영방(1985), 「미술교육 I」,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p.149.

로 대화 할 수 있는 특성이 미적 체험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여 수많은 물질들로 구성되어있는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얻어지는 미적 체험을 중요시 하고 있다.

모든 생명은 흙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육체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도 흙이다. 그래서 흙 내음을 맡고 흙의 촉감을 감지하게 될 때마다 향수처럼 가슴속에 전해지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로 우리는 인위적인 교재, 즉 나무, 크레용, 철사, 벽돌 등과 같은 교재로 교육을 받게 되어 점차 자연과 멀어졌고 교육 내용 또한 평면적인 것에 치중해 왔다. 이에 반해 점토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촉감적인 질감을 갖고 있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조각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대상물을 만져서 느껴 보거나 손으로 다루어 보는데 있다.”⁶⁾고 했다. 이러한 촉감적인 질감은 3차원 구조체에서 생기는 표면의 고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간의 성격이나 중량감, 양감의 감각적인 면을 결정짓는다. 특히 흙을 재료로 하는 조형물에서는 나무, 금속, 돌, 유리 등과는 달리 그 독특한 재질을 기본으로 소지나 유약 등에 의한 여러 질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은 자연과 멀어져 가는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 성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후일 사회생활을 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흙이라는 촉각적 매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형태와 표면 처리에 대한 감각과 상호 연관되는 형태를 다루는 능력은 직관뿐만 아니라 지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즉 선과 형태, 무게와 공간, 표면의 관계, 균형과 조화는 점토라는 표현 매체에 있어서 필수 요소로, 그릇을 만들든 조각품을 만들든 통일, 변화, 비례, 대비, 반복, 운동과 같이 3차원 형태에 적용되는 조형요소들이 서로 조화되었을 때 우리가 감응 할 수 있는 심미적 특성을 창조⁷⁾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점토는 다른 표현 재료와는 달리 가소성⁸⁾의 특성으로 인해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고 잘라 내거나 질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약간의 변화를 주어도 형

6) 허버트리드(2001), 「조각이란 무엇인가」, 이희숙 역(2001), 열화당, p.91.

7) I, 그레고리(1999), 「도자조형」, 김순배 역(1999), 진우, p.12

8) 소성이라고도 하며 물기가 있는 점토에 외부의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여러 형태로 변하고 그 후 외부의 힘을 제거해도 변형된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성질

태가 자연스럽게 빚어지며 작은 힘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어 공간감과 덩어리(mass)와 양감(volume)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즉 덧붙이거나 자르거나 뜯어내거나 쌓는 등 그 양을 바꾸는 행위와 뭉치거나 넓히거나 집어 올리거나 비트는 등 그 형을 바꾸는 행위, 그밖에 깎아 내거나 후벼내는 등 그 양을 감소시키는 행위, 표면에 다른 물체를 찍어 흔적을 남기거나 긁어서 느낌을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등으로 그 표현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도예 조형은 3차원이지만 부조는 2차원에 가깝고 모빌은 4차원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으므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형을 창조할 수 있어 재료와 기법에 관한 탐구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입체표현은 전후, 좌우, 상하로 눈의 초점을 이동시켜 가며 대상을 관찰·표현하게 하여 비례감각이나 균형에 대한 판단력을 발달시키고 기초적인 조형 감각을 신장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점토의 조형성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형상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시각적 상상력과 감정의 좋은 표현 수단이 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점토의 조형 미감을 느끼게 해 준다.

즉 도자의 성형이나 소성과정의 필연성 때문에 속이 빈 용기들을 만들면서 학생들은 공간을 탐구할 수 있으며 특히 점토는 무르기 때문에 일단 도자기 형태가 완성되면 조각칼로 쉽게 조형공간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도자기의 넓은 굽은 안정감을 나타내고 물레로 성형된 도자기의 작품 감상을 통해 좌우대칭 균형을 배울 수 있으며 표면 질감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원통과 같은 안정된 형태를 잡아당기거나 늘여 운동감을 느낄 수 있으며 조선 백자와 같은 배부른 형태는 뚜렷한 풍취의 양감과 곡선의 우아함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활 도자 형태들에서 우리는 자연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 유연한 곡선이 조화된 유기적 형태를 배울 수 있고, 실용적인 생활자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평면(회화, 디자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조형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처럼 흙은 그 자체만으로도 원초적인 생명력과 함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내구성과 상징성으로 광범위한 형태로 표현 될 수 있다. 그 표현 영역은 너무나 다양하여 어떠한 미술 영역보다 탈 장르화한 미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옛 부터 “도자공예와 회화는 우리 인간의 삶의 문화에 있어 시원적이며 본질적인 것들로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 가해진 빗살문이나 채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조선 백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화선지 위에 그려진 문인화 못지않은 기품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시유⁹⁾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터 도자공예는 기능, 형태, 색(이미지)이라는 조형의 기본 틀을 지니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릇에 장식하고자 하는 회화(장식)심리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점토의 여러 표면 즉 곡면과 평면 위에 면 또는 색채가 부여됨으로써 기물과 그림이 일체 됨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분청사기의 회화적 표현은 형태를 극대화 시키면서 가장 순수하게 그려져 있는 하나의 실례로 유약은 종류와 기법에 따라 도자예술의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도자공예의 중요한 조형 요소로 발전되어 왔다.

현대 도자공예의 회화적 의미는 현대 미술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려 넣는 한계를 극복하여 드로잉(Drawing)과 형태가 융합되고 회화적 요소가 극대화된 조형적 표현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도자공예 작품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도자공예 작품은 점토라는 재료의 특질에 맞는 형태와 감정이 잘 조화될 때 도자공예의 회화적 의미가 보다 발전적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또한 현대 도자공예의 명칭은 도조라고 불리질 정도로 도자공예에 있어서 조소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자공예의 출발은 “거대한 흙으로 빚어 구워 낸 조각”¹⁰⁾이라고 까지 하였다. 도자와 조소 사이의 유사성은 점토가 양자 모두에게 기본 재료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도예가와 조각가는 입체와 공간과 재료의 현실성, 그 자체만으로 창조적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도자공예는 가소성이 있는 흙을 이용하여 속을 비

9)유약을 도자기에 바르는 것을 시유라고 한다. 유약은 보통 초벌구이 한 다음에 바른다. 왜냐하면 초벌구이를 하지 않고 유약을 바르면 기물의 탄력이 없고 지나치게 흡수성이 많아 결국 기물은 균열이 생기거나 부서지고 만다. 그러나 컵 같은 작은 기물은 초벌구이를 하지 않고 시유하여도 가능하다.

10)전진희(1997) “도예와 조각” 「월간도예」, 7월호, 월간미술사, p.9.

워서 만들어야 하고 성형, 건조, 소성, 운반 등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조소는 전통적 도구와 재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 자체의 의미, 즉 재료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고 새로운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자 출현에 대한 추구, 표면의 힘과 자극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전적이며 형식적인 표현에 대한 도전으로서 도자공예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예가 갖는 조각적인 조형성은 20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 또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토우에서 이미 찾아 볼 수 있으며, 회화와 조각의 새로운 조형 실험은 도예가의 형태적 종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많은 영향을 주어 그들의 공간 즉 조형적 경향으로 나아가는 필연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듯 인간 감정의 표현 욕구는 선사시대부터 계속되어온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미술적 능력이 자연발생적으로 혹은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능력은 아니다.

아이스너(E. Eisner)는 “미술적 능력은 자동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습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능력”¹¹⁾으로 보아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피아제(J. Piaget) 역시 인간은 공간 지각을 비롯한 양감이나 무게감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예활동은 단순히 흙을 만지고 기물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렌더링 등 디자인적 요소와 함께 가마소성, 유약배합 등의 과학적 요소, 그리고 굵고 상감¹²⁾을 넣는 등 조각적이고 회화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평면적인 것에서부터 입체적인 것에 이르기 까지 무궁무진할 정도로 표현 영역이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도예 활동을 통해 조형 의식을 구체화하는데 따르는 재료, 용구의 특성을 알고 유효하게 다룰 수 있는 손의 기능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탐구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점토 이외에 여러 가지를 접목하여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흙을 통한 조형 교육은 색을 통한 평면활동에서보다 형을 통한 입체적

11)김 정 (1997), 「세계미술교육」, 예경, p.72.

12)기물의 표면에 무너를 음각한 후, 백토나 자토를 넣는 기법으로, 선상감과 면상감이 있다.

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입체적, 공간적 형태, 즉 3차원 세계에 쉽게 접할 수 있어 창의력과 개념적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도자공예를 이용한 다양한 조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재료의 특성을 살려 그들의 느낌이나 생각, 정서, 경험 등이 창의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도자공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흙을 만지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지를 스스로 느끼게 하고 자신이 직접 작품을 만들면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즉 도예 활동을 통해 예술적 경험이 시각적 경험보다 촉각 경험에서 먼저 출발한다면 학습자의 지적·정신적 발달에 보다 더 바람직 할 것이다.¹³⁾

2) 흙의 특성

“흙은 암석이 풍화작용에 의해 분해된 것으로 규산 반토질 등의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세한 광물의 집합체이다.”¹⁴⁾

도예활동의 재료인 점토(흙)는 가소성 및 내연성이 있으며 점토의 점력은 아동이 만지기에 적합하므로 유아교육에서부터 널리 미술 재료로 쓰여 지고 있다.

특히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구나 흙을 주무르고 낙서를 하면서 성장했듯이 흙은 우리에게 친숙한 재료임에 틀림없다. 아동들이 점토를 주무르고, 굴리고, 짓이기고, 손가락으로 눌러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흙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된다. 이처럼 도예활동을 통하여 모든 환경으로부터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켜주고 어린이의 꿈과 세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흙은 어떤 재료보다 앞서는 재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점력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며 남은 것은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감 없이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다.

안중호는 입체조형교육에 있어서 “어린이의 신체발달상 손과 간단한 도구의

13)김재호(1985), “점토공작이 아동의 창의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p.1~3.

14)엄광섭(1984), 「조형재료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89.

사용으로써 점토보다 더 이상 자유로이 가공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연적인 흙에 친근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점토의 특성으로 유연성, 변형성, 접착성, 변질성, 촉감성, 정신성 등 여섯 가지 특성을 들고 있다.¹⁵⁾

(1) 유연성

흙이 지니는 부드러움을 말하는데 함수율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당한 함수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점토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다. 표현에 적당한 점토는 손으로 흙을 주무를 때 점토가 손에 들어붙지 않을 정도이며, 또 너무 건조하여 표면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 정도가 적당하다.

(2) 변형성

신체의 물리적인 작용으로 손이나 도구로 물리적 변형을 주어 모양을 바꾸는 것이 변형성이다. 손바닥이나 손가락 또는 간단한 도구에 의하여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그 형태를 바꾸는 점토공작의 폭 넓은 변화를 체득한다.

(3) 접착성

일정한 양을 형성하고 있는 점토에 또 다른 점토를 덧붙여서 그 양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점토가 접착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접착제 또는 접합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점토자체로 결합과 접착이 가능하며 양과 형의 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심봉대 등의 보조재를 사용하여 형태의 구조적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4) 변질성

점토를 건조시켜 가열하면 점토의 물리적 특성이 크게 변질된다. 점토는 일종의 열경화성 물질이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물리적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라 재료가 달라지므로 아동의 모든 감각적인 면에 있어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점

15) 안중호(1977), 「공산성」, 제12집, p.49.

토의 성질을 이용하여 테라코타(Terracotta)¹⁶⁾나 도자기 등을 제작할 수 있다.

(5) 촉감성

피부를 통하여 지각된 촉감을 말하는데 재질의 감촉이나 온도감 등에 의해 다른 촉감성을 갖게 된다. 점토는 함수율에 따라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 등 다양한 촉감을 느끼게 하여 체험적 조형표현에 매우 중요한 정서성을 제공하고 있다.

(6) 정신성

쾌적함과 안정감 등의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특성을 갖는다. 정신성은 근육 운동을 통하여 외면의 활동을 촉구하는 경우와 피부 감촉을 통하여 내면적 정서에 연결되는 경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전한 성장발달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재료의 특성은 학생들이 의도적 표현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들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촉감 속에서 엄마 품을 찾는 아기와 같이 안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16)테라코타(Terracotta)는 어원이 라틴어로 흙(Terra)과 굽는다(Cotta)는 의미가 합쳐진 말이다. 테라코타는 도자기의 초기 형태로 유약처리가 안된 그릇모양의 토기나 토우의 형태 또는 어떤 목적과 용도 및 기법에 상관없이 점토로 만들어진 저화도 초별구이를 의미한다.

2. 도예교육의 방법

흙과 불의 예술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예는 나라, 민족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표현 방법으로 특징을 달리하긴 했으나 광범위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흙이 가지고 있는 가소성을 이용하여 원하는 성형을 하고 유약을 시유해 발색하는 것이 도예 작품의 제작활동이라 할 수 있다.

도예의 공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 흙 이기기→성형하기→건조하기→초벌구이하기→시유하기→재벌구이하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도자기의 장식을 위한 무늬찍기, 또는 조각하기, 그림 그리기의 작업이 제작과정 중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도자기로 완성된다. 그러나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예교육은 지도하는 과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흙이라는 재료로 실내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공간적인 제약이외에도 학생들이 흙의 가소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데 서투르고 약간의 기교적인 기능을 습득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기능이라고 해서 어떠한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도예교육의 전 과정을 교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흙 이기기 과정을 이해하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의 표현방법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1) 성형기법

도자기 성형방법에는 점토로 공 모양을 만들고 손가락을 눌러서 기물의 형태를 만드는 “빚어 만들기(Pinching), 손으로 떡가래처럼 코일을 만들어 쌓아 만드는 말아 쌓아 만들기(Coiling), 점토판을 만들어 결합시키는 판 붙여 만들기(Slabbing), 점토 덩어리로 대략의 형태를 만든 후 건조 상태를 살펴가면서 속을 파내는 파내어 만들기, 사용 틀을 만들어 흙물(Slip)을 부어서 만드는 주입하여 만들기(Casting), 원심력을 이용한 물레로 만들기(Wheel Throwing) 등 이외에 여러 가지 성형방법이 있다.”¹⁷⁾ 성형방법의 선택은 만들고자 하는 형태와 크기,

수량에 따라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각 방법의 특징을 확실히 알아야 하며, 그 방법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만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특수아를 대상으로 하는 도예교육이니 만큼 많은 훈련이 필요한 물레로 만들기(Wheel Throwing)나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 필요한 주입하여 만들기(Casting)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손쉽게 배울 수 있고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기초적인 성형 방법인 빗어 만들기(Pinching), 말아 쌓아 만들기(Coiling), 판 붙여 만들기(Slabbing), 파내어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한다

(1) 빗어 만들기(Pinching)

빗어 만들기는 “손으로 형태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핀칭(Pinching)”¹⁷⁾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빗어 만들기는 송편을 빚는 것처럼 손으로 빗어 만드는 성형 기법으로 처음 도자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 흙장난을 할 때와 추석 전날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송편을 빚었던 때의 추억을 생각 하리 만치 친밀감을 느끼며 즐거운 기분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법은 일반적으로 큰 기물을 만드는 데는 적당하지 않지만,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면서 소박한 맛을 지닌다.

특히 찻잔 만드는 방법을 응용하면 작은 기물이라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는 기면에 여러 가지 장식도 가능하며 소지도 색상이 서로 다른 것을 혼합하고 반죽하여 만들면 자연적인 문양이 되어 아주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17)서길용(1991), 「도자실기」, 조형사, p.58.

18)한길홍(1989), 「도자공예」, 서울산업대학교출판부, p.51.



〈그림 1〉 빚어 만들기

(2) 말아 쌓아 만들기(Coiling)

말아 쌓아 만들기는 “흙 줄을 한 줄 한 줄 쌓아 올려 기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우선 흙 줄을 만드는 요령을 잘 익혀야 한다.”¹⁹⁾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도예를 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물레 성형과는 달리 어떠한 형태에도 구애 받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에 맞게 자유자재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숙련된 기술이 없어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빚어 만들기와 같이 도자기를 처음 만드는 사람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처음 흙가래를 만들면 굵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한다. 또한 지나치게 손에 힘을 가하고 성급히 하려 하면 흙가래가 접혀 흙가래 속에 기포가 생기게 되고 흙가래에 균열이 생기므로 천천히 그리고 힘을 조금씩 주면서 만들어야 한다. 즉 흙 줄은 굵기에 따라 기물의 두께나 형태에 영향을 주므로, 일정한 굵기의 흙 줄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흙가래 만들기는 물레나 틀로 만들기와는 달리 임의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또 큰 용기나 독을 만들 때에는 굵은 흙 줄로 말아 쌓아가며 물레를 사용하여 만든다.

19)교육부(1996), 「공예실습」, 서울산업대학교 산업교육연구소, p.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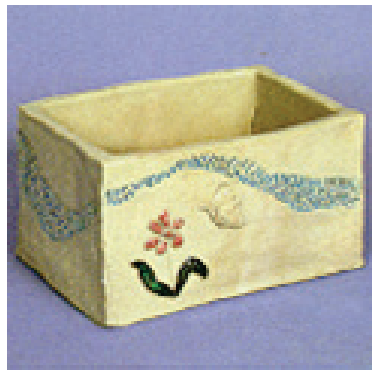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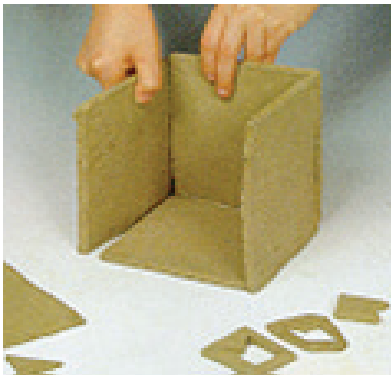
〈그림 2〉 말아 쌓아 만들기

(3) 판 붙여 만들기(점토판 성형 Slabbing)

판 붙여 만들기는 “점토판을 만들어 각진 기물 또는 원통 기물을 결합시켜 만드는 방법”²⁰⁾으로, 기초 작업은 일정한 두께의 점토판을 만드는 것이다.

“점토로 판을 만들고 여러 개의 판을 서로 결합하여 작품을 만들거나 병 같은 물체에 점토판을 말아서 만드는 방법 등 원통형이나 정육면체 등 수직 형태나 각형이면 어느 형태든지 가능하다.”²¹⁾

생활도자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봤을 때 판을 만드는 방법은 밀대로 점토를 밀어 0.5~1cm 정도 두께로 얇게 밀어서 만드는 방법과 점토를 일정한 두께로 자르는 방법도 있으며 도판기(slab roller)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3〉 판 붙여 만들기

20)교육부(1996), 전계서, p.143.

21)서길용(1991), 전계서, p.74.

(4) 파내어 만들기 (테라코타 만들기)

파내어 만들기는 “형태가 복잡하거나 조형성이 강조되는 작품을 제작할 때 이 용되는 성형 방법이다.”²²⁾ 점토 덩어리로 대략의 형태를 만든 후, 건조 상태를 살펴가며 의도한 형태를 만든다. 표면이 건조되어 단단해지면, 형태에 따라 절단하여 속을 파내고 자른 면을 긁고 흙물을 발라 두 쪽을 다시 접합하여 완성한다.



<그림 4> 파내어 만들기

(4) 건조



성형의 중요성 못지않게 건조과정 역시 중요하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작품일 지라도 건조과정을 소홀하게 하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갈라지거나 파손된다. 대형 작품일수록 밀폐된 실내 건조실에서 습기를 주어 가면서 서서히 건조하여야 한다. 작품을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내놓거나 햇볕에 내놓으면 거의 틀림 없이 갈라지게 된다. 겨울철에는 실내온도가 높거나 또는 급격히 낮아져 기물이 파손되기 쉽다. 점력이 많은 점토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기물의 겉 부분과 속 부분이 같은 속도로 건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겨울에는 기물을 신문지나 종이 등으로 감싸준 후 비닐로 살짝 씌워주면 보온을 겸하면서 서서히 건조된다.

(5) 장식

장식은 도자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숙련자뿐 아니라 초보자도 매우 중요하

22)교육인적자원부(2005), 「공예」, 서울산업대학교 국정도서 공예 교과서 편찬위원회, p.114.

게 다루는 부분이다. 도자장식은 장식을 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장식이 형태를 압도해서는 안 되며, 상호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자장식은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어 “1차 장식(성형직후 또는 건조 과정 중에 하는 장식)과 2차 장식(초별구이 이후에 하는 장식), 그리고 3차 장식(재별구이 이후에 전사지등의 부착으로 하는 장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형에서부터 소성까지 각 단계마다 여러 가지 장식기법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아름다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²³⁾

질감을 내기 위한 장식으로서 음각,²⁴⁾조각, 압인²⁵⁾하기 등은 기물이 반 건조 상태인 레더 하드(Leather Hard)²⁶⁾ 상태에서 하면 점토가 깨끗이 파지고 도구에 들러붙지 않아서 좋다. 음각은 점토 표면을 도구를 이용하여 선 모양으로 파는 것인데 이 선을 깊게 파면 강한 액센트(accent)를 주고 얇게 파면 외곽선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압인은 가장 오래된 도자 장식기법 중 하나로 많은 신석기 시대의 기물은 직물, 새끼줄, 바구니 문양을 눌러 만들어 졌다.²⁷⁾ 반 건조 상태의 기물에 점토를 덧붙여 반 입체감이 나도록 장식하는 부조기법은 점토조각이나 얇은 코일을 기물 표면에 덧붙여 가며 문양을 표현하며 스프링킹(Springging)이라고도 한다.

23)교육인적자원부(2005), 전계서, p.73.

24)조각도나 대나무 칼을 이용해 기물의 표면에 일정한 깊이로 무늬를 새겨 넣는 방법이다.

25)도자기 표면을 딱딱한 것으로 누를 때 자국이 쉽게 날 정도로 무른 상태에서 해야 한다. 이러한 장식을 한 도자기는 신라시대의 골호나 조선시대의 분청 등이 있다. 도장은 나무를 파서 할 수도 있지만 점토에 문양을 파서 소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더 쉽고 운치가 있다. 또 석고에 파거나 고무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방망이에 새겨서 점토판에 밀어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26)반 건조된 상태로 물기는 있으나 딱딱해진 상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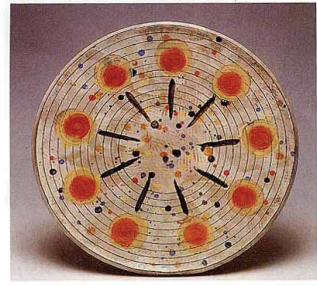
27)글렌 C·넬슨(1990), 「도자예술」, 임무근·신광석 역(1990), p.112.



〈그림 5〉 선각 병²⁸⁾



〈그림 6〉 연어도 장식 접시²⁹⁾



〈그림 7〉 큰 접시³⁰⁾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공예」, 서울산업대학교 국정도서 공예 교과서 편찬위원회 p.74~76.

(6) 초벌구이(1차 소성)

초벌구이는 소지 내의 불순물이나 유기 물질을 제거하고 흡수율을 높여 시유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 강도가 높아져 시유나, 가마 쟁임 등 기타 작업 시에 파손율을 줄여준다.

“소성은 700~900℃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나, 점토분이 많으면 낮은 온도에서, 적으면 높은 온도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벌구이의 쟁임은 태토에 유리질이 형성되기 전이므로 겹쳐도 지장은 없으나, 무리하게 쌓으면 무게에 눌려서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기물과 기물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주어 열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소성이 끝나면 가마로 통하는 모든 공기구멍을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마가 쉽게 손상될 뿐만 아니라, 가마 내에 있는 내화판과 기물이 급속한 냉각에 의해 파손된다. 그러므로 냉각은 서서히 이루어져야 하며, 가마 내부 온도가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가마의 문을 열어야 한다.”³¹⁾

28)병 전체에 기학적 무늬를 음각하여 양각의 효과를 주었다.

29)상감, 인화, 박지 기법 등 다양한 화장도 장식법으로 물고기와 연꽃을 시문하여 장식하였다.

30)도자용 물감을 이용하여 추상화를 그리듯 자유롭게 시문하여 장식하였다.

31)교육인적자원부(2005), 전계서, pp.92~93.

(7) 시유하기

“유약은 사람에게 옷과 같은 역할로써 초벌구이가 된 기물에 어떠한 유약을 어떻게 시유하느냐에 따라서 천태만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에게도 좋은 몸매에 적절한 옷, 즉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 멋이 나는 것과 같이 작품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유약의 색채, 감촉, 소성방법 등에 따라 적절한 유약을 시유하여야 한다.”³²⁾ 그러나 유약은 항상 가마 속에서 불의 작용에 의하여 또는 불의 조절에 따라 약간씩의 변화가 생기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똑같은 유약을 가지고도 작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유약의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며 불의 조절이 다소 틀려지기 때문이다. 유약에 담그거나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거나, 또는 유약을 흘려서 입히거나 붓으로 바르는 방법 등 작품의 성격에 맞추어 적당한 시유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유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8) 재벌구이(2차 소성)

“재벌구이는 ‘본 구이’ 또는 ‘참 구이’라고도 하는데 1,200~1,300℃로 소성을 하며 도자기의 제조 공정 중 마지막 과정이다.”³³⁾ 도자 예술을 한 마디로 정의 할 때에 흙과 불의 예술이라고 한다. 즉 도예는 흙으로 만들어 불로 구워내어야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구이 과정은 도예의 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아무리 잘 만들어서 좋은 유약을 입혀 놓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재벌구이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와 방법이 틀어지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각기 도예가들의 의도에 따라 마지막 재벌구이 과정에서 가스, 나무, 전기, 또는 노천 소성 등 어떠한 소성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 역시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점토의 선정과 작품의 소성과정, 온도, 방법 등이 확실하게 결정된 이후에 작품의 제작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작품의 크기와 가마의 크기도 미리 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며 미리 설정된 재벌구이 방법에 따라서 마무리해야 한다.

32)한길홍(1989), 전계서, p.26.

33)서길용(1991), 전계서, p.228.

2) 도예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성중심의 주지주의적 관점에 치중함으로써 사물과 현상에 대해 감각적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직관적·정서적인 능력의 육성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예술을 통한 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임무는 예술을 통한 인간 교육이어야 한다.”라고 주장 하였다. 즉, 조화 있는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는 예술에 의한 교육 외에는 없으며, 여기에 미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다는 것이다.”³⁴⁾

‘흙’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상징은 현대화되고 과학화 되어 갈수록 상대적으로 불변하는 요소이며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도예교육은 점토를 재료로 완성하는 미술표현의 한 분야로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지각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이며 자연의 기초가 되므로 학교에서 도예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자공예는 우리의 생활과 친숙한 미술 표현 분야로 엮태진은 “점토가 근육운동과 조형감각과의 협응에 도움이 되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능케 하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좌절감 보다는 성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³⁵⁾고 하였다. 또한 점토는 실습재료로서 위험요소가 적으며 촉촉한 느낌이나 부드러운 재질감은 신체나 감각에 직접적 경험을 살린다. 즉 “점토는 단지 하나의 재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 재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를 자극한다.”³⁶⁾ 또한 “점토는 만지는 대로 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미술활동”³⁷⁾ 으로 점토에 여러 재료를 끼우거나 붙일 수 있어 창의적인 조형학습에 효과적이다. 즉 점토를 이용해 많은 실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매체와의 다양하고 계획된 경험을 통해 학교라는 세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34)김영학(1989), 「미술교육」, 대완도서출판사, p.33.

35)엮태진(1986), 「유아교육을 위한 창작 공예」, 창지사, p.119.

36)Lowenfeld and Brittain(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1993), 미진사, p.153.

37)오정현(1984), “아동미술교육을 위한 Arts Play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p.34.

특히 점토는 학생들이 표현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동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흙이 가지는 유희성은 비언어적 매체를 통해 개념을 학습하고 그 개념을 또 다시 비언어적 매체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지식을 쉽게 전이시킬 수 있어 학습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도예 활동에서 손으로 만드는 행위는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일상생활과 교육에서 모든 공작은 주로 손으로 하는 행위로 과학이 만들어낸 어떤 정밀한 기계도 인간의 손의 기능처럼 섬세하지는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손의 신경은 구석구석 뻗어 직접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 심리적인 평형을 가져오게 하여 정신의 진실성과 정밀성까지도 향상시킨다.

나아가 “미래세계는 도자공예 문화가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도자기가 생활 용구로 사용되고 여러 가지 장식품과 도자 공예품들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⁸⁾ 이런 현실에서 도자공예 교육은 현대 생활 속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 생활 문화와 친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도예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예교육은 흙이라는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가소성을 이용한 표현 재료에서 유희적인 즐거움을 길러 주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것은 ‘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통해서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신비스럽고 창조적인 전환 과정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재료에서 느껴지는 표면의 특성과 실제로 작업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흥미로운 교육의 요소인 것이다. 특히 흙을 이용한 입체 표현은 좀 더 안정성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며, 이야기 거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흥미를 촉진시킨다.

둘째, 도예교육은 전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끈기가 요구되고, 흙을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므로 작품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미적 감각을 길러주고 창조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38)윤용이(1996),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교재, p.10.

셋째, 도예 교육은 창의적 사고 신장에 도움을 준다. 흙을 이용한 표현활동은 원하는 형태로 변형 할 수 있어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는 내적 욕구의 충족과 창의적으로 대상을 관찰하거나 표현하게 하여 비례감각이나 균형에 대한 판단력을 발달시키고 기초적인 조형감각을 신장시킨다. 창의성은 자기표현을 통한 창의력 교육으로 확산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

넷째, 도예교육은 촉각 예술로서 입체공간에 대한 조형성의 향상과 표현활동을 돕는다. 도자공예는 촉각을 다루는 매체로서 입체표현을 통하여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미술 교육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흙은 점, 선, 면, 입체 등 어떤 형태든 학습이 가능하며 조형감각 형성에 매우 적합한 재료인 동시에 3차원적인 공간개념을 자극한다. 학생에게 정서나 사고, 자연에 대한 인상을 점토를 통해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서와 감정에 대한 인식을 더욱 크게 발달시키는데 그 가치가 있다.

다섯째, 도예교육은 인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예 교육을 통해 재료의 접촉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기능적인 면과 주관적 감동으로 야기되는 정서적 안정은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기의 정서나 사고, 자연에 대한 인상을 흙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게 정서와 감정에 대한 인식을 더욱 크게 발달시키는데 가치가 있다.³⁹⁾

“창의적, 정서적, 사회적 목적을 지닌 조형교육은 일상생활을 보다 즐겁게 영위하도록 해주며, 자신의 사고와 느낌 그리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재료를 다루는 능력과 주위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의지와 인위적인 디자인에 대한 미적 정서를 고양시키며 예술가적인 취향을 기르도록 해준다.”⁴⁰⁾

도예교육은 원초적인 체험에 대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교육환경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은 물론 대담하고 적극적인 자세, 풍부한 상상력, 정서적인 안정감, 조형감각과 창의성 등을 키우는데 더 없이 적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39)이창림(1995), “미술의 기능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5호, p.10.

40)LeonLoyal Winslow (1942), Art in Elementary (New York: Mcgaw Hill Book CompanyInc,) pp.93~94.

나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도예 활동에 있어 교수 내용과 지도 방법은 어떤 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형체험의 과정이 자유롭고 재미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조화로운 인성계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는 학생들이 다양한 조형체험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자연스럽게 표현능력을 일깨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조형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Ⅲ.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한 도예교육

1. 정신지체의 특성

1) 정신지체의 정의

정신지체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개념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최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에서 발표된 정의는 2002년에 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란 현재 기능에 실질적인 제한성이 있는 것을 지칭한다. 정신지체는 지적 기능과 개념적·사회적·실질적 적응기술에서 상당한 제한이 나타나는 장애로 이는 18세 이전에 시작된다. 정신지체는 유의하게 평균이하인 지적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적응성,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기술 영역 즉, 지적 영역, 적응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역할, 건강, 주변 상황 등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AAMR 2001)⁴¹⁾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9조 ②항> 별표에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란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 결함을 지닌 자”⁴²⁾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신지체협회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연령을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적응능력의 결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91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신지체의 정의를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41)최중욱 외 2인(2002), 「정신지체아 교육」, 양서원, p.24.

42)백은희 (2005), 「정신지체 이해와 교육」, 교육과학사, p.31.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⁴³⁾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지체의 전통적인 분류를 보면, 수용시설이나 임상장면에서 백치(idiot), 치우(imbecile), 우둔(moron)으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가능급(educable), 훈련가능급(trainable), 요보호급(custodial)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지능지수를 기초로 하여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로 지체정도에 따라 4수준으로 하위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는 복지지원을 하기 위해 정신지체인을 지능수준과 생활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⁴⁴⁾

- 정신지체1급

34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정신지체2급

35이상 49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정신지체3급

50이상 70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능지수의 상한선을 70에 두고 지능,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신지체 여부와 그 등급을 판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정의는 정신지체를 절대적인 특성(trait)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상태(state)로 보려는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능지수(IQ)를 개념의 축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사회적응기술, 감성지능(EQ)등의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43)김영욱 외(2006),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p.159.

44)상계서, p.161.

2) 정인지체아의 특성

모든 개인을 다양한 지적 적응성,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환경적 상황 등을 지닌 복잡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인지체인 또한 동일한 인격체로 보는 것에서 기인하여 최근에 정인지체의 진단과 분류에 있어서 임상적인 판단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정인지체는 단지 발달속도가 더디다는 것이지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도 대부분 일반아동들과 똑같은 생리적, 사회·정서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여러 면에서 개인차가 있으므로 정인지체아 교육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모든 정인지체아들이 동일한 지적, 학습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심리 운동적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정인지체아들을 올바르게 교육 배치하자면 그들의 행동특성이나 요구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화된 행동특성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본질적인 지적 결함과 이에 따라 파생된 2차적 장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정인지체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격·동기 특성

정인지체아들에 대한 인지적, 언어적 특성의 중요성은 잘 인식되고 있지만 성격·동기적인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흔히 간과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특성들은 정인지체아와 정상아간의 기능적 차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⁴⁵⁾

① 실패의 예상

초기 학습활동에 자주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미리 예상하여 실패를 야기하는 과제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낮은 성취기대와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그것이 결국 동기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의존성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주위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45)김영옥 외(2006), 전게서, pp.167~168.

도와주거나 혼자서 문제해결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지 않아 때때로 그들 자신의 능력을 불신한 결과라 볼 수 있다.

③ 통제의 외적 요소

종종 정신지체아들은 운명이나 과제의 난이도등 그들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요인과 같은 힘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힘으로 능히 해 낼 수 있는 일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발달적으로 적절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성숙하면서 노력하면 해 낼 수 있다는 내적요소로 바뀐다.)

④ 부정적 자아개념

다소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정신지체아들이 열등한 자아개념을 가진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성에 대한 강한 긍정적 느낌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자아개념은 생활에서 부적응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2) 사회·행동적 특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앞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적응행동 결함이 정신지체를 규정하는 주요인으로 지능이 낮거나 교과학습에 곤란이 있다고 해서 정신지체라고 보면 안 된다. 정신지체아들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적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지향성, 책임감, 사회적 기술 등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 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⁶⁾

“이러한 거부는 정상아들이 학문적 무능력보다 행동의 부적절성을 더 의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영역들로는 파괴적 행동, 주의집중 결핍, 낮은 자아존중감, 과잉행동, 산만함과 주의집중 관련문제들, 그리고 대인간 인지적 문제해결에서의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⁴⁷⁾ 이것은 정신지체아들을 일반교

46)Gottlieb, J & Budoff, M (1973). Social acceptability of retarded children in nongraded schools differing in architectur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78, pp.15~19.

47)Healey, K.N., & Masterpasqua, F. (1992). Interpersoncy among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6, 367~372.

육의 장애 통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학습특성

학습이란 연습 혹은 경험이 성숙이나 성장, 또는 발달에 기인하지 않는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도정신지체아들은 학습능력이 대체로 열악하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초등 1~3학년 정도이고,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초등 3~5학년 정도의 능력을 갖는다. 또한 중도 정신지체아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고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초등 1~2학년 정도의 학습능력을 가질 수 있다.”⁴⁸⁾정신지체아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학습특성은 다음과 같다.⁴⁹⁾

① 주의집중

정신지체아들은 주의집중은 3가지 주요 구성요소에서 심한 어려움을 가진다. 주의집중 지속시간(일에 대한 시간의 길이), 주의집중의 범위와 초점(산만한 자극의 억제 및 한 자극에 집중하기), 그리고 선택된 주의(주요 자극 특성의 변화)이다. 그러나 학습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만 잘 하면 학습 지도에 거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중재전략

중재는 한 개인이 자극과 반응을 연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지체아들은 주어진 투입정보를 나중에 재생하기 위해 조직, 구성하는 효과적인 전략의 생성 및 활용능력이 부족하다.”⁵⁰⁾ 성숙한 학습자의 전형적인 기술에는 언어시연과 반복, 명칭붙이기, 분류, 연합, 그리고 표상이 포함되는데 연구조사에 의하면 정신지체아들은 ‘소극적 학습자’가 되려는 경향 때문에 이 같은 전략을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③ 기억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아들은 단기기억 분야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48)구분서 외(2004),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p.149.

49)김영욱 외(2006), 전제서, 교육과학사, pp.169~171.

50)Borkowski, Go, & Day, J.d.(1987), Cognition in special children: Comparative approach to retardation, learning disabilities giftedness, Norwood: Ablex publishing co.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장기기억은 정상아에 비교할 때 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⁵¹⁾ 또한 정보의 시연을 통한 재인, 재생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인다.

④ 전이와 일반화

전이란 한번 학습한 내용이 다음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고, 일반화란 학습한 내용을 다른 시간, 다른 상황,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용하는 현상인데, 정신지체아들은 새로운 일이나 문제, 그리고 자극상황에 지식이나 기술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선행경험을 미래의 비슷한 상황이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지 못한다.

⑤ 추상화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나 추상적 자료를 가지고 일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성과 가정에 의해 예증하는 것 같은 상징적 사고도 제한되어 있다.

⑥ 우발학습

정신지체아들은 상당히 비능률적인 학습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발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 때문이다. 일반아동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계없는 정보나 무관자극을 무시하게 되고 과제의 본질적인 면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정신지체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⑦ 관찰학습

정신지체아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관찰학습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시범으로부터 사회적 행동, 성역할, 언어, 그리고 여러 사회적 기술 등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4) 말과 언어 특성

말과 언어의 발달은 지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지체아들이 일반인들보다 말과 언어에 더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언어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어 조음장애(예: 음의 대치와 생략)가

51)Belmont, J. M. (1996), Long-term memory in mental retardation. New Youk: Academic Press.

자주 발생하고 그들 사이에서 구어발달의 지연, 제한된 어휘,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문법 사용 등이 보통이다.”⁵²⁾ 언어장애는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이다.

(5) 신체 및 운동 특성

정신지체아의 신체적 특성은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에 비하여 정상아와 비교적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체의 기능이나 운동능력 면에서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고 각각의 기능에 있어서도 그 변별능력이 정상아에 비해 열등하다.

그리고 운동 능력에 있어서 체력검사의 평균 점수가 정상아 보다 다소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이는 시력, 청력, 신경학적 문제의 발생율이 다소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지체아의 신체적 특성은 결국 신체적 발달보다는 감각운동 기능면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IQ가 낮을수록 현저하고, 중복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로하고 저항력이 약하며 수명도 짧다.⁵³⁾

(6) 학업성취



정신지체 학생들은 모든 교과영역에서 결함을 보이고 있다. 경도 정신지체아들은 대부분 정신연령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이며, 읽기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이해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학적 기초에서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등은 일반적으로 평균정도 할 수 있으나 수학적 추리에서는 특히 열등하다. ⁵⁴⁾

3) 정신지체 청소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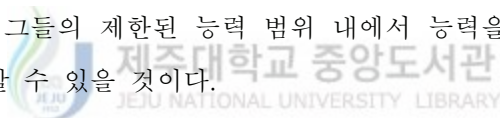
정신지체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같은 기본적인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가지고 있으나 지적능력이 지체되어 학습수행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 청소년이나 아동은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

52)Polloway, E. A & Smith, J. E 1982). Teaching language skills to exceptional learners, Denver: Love

53)김정권, 한현민(1997),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특수교육, p.135.

54)구본권 외(2004), 전개서, pp.150~151.

지 문제를 직접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으나 정신지체 청소년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으며, 개념형성이 매우 어렵고, 대인관계 등 사회기술면에서 많은 결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회성 기술의 결핍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각해져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능력과 운동능력에 있어서도 시력, 청력, 신경학적 문제의 발생률이 다소 높기 때문에 열악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손상으로 인해 협응, 소근육 운동기능 등에서 문제들이 발견된다. 실패에 대한 경험이 누적된 사람은 또 다른 실망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보다 낮은 수준의 욕구와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처럼 정신지체 청소년들은 실패에 대한 높은 예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적응 기술들을 보이는 것이 어려운 환경을 접하면서 갖게 된 경험들 때문에 종종 일반 청소년들과의 차이를 더 두드러지게 하는 행동 양식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정신지체 학생은 실패의 경험을 줄여주면 새로운 성공경험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성공할 수 있는 행동 모델을 주면 그들의 제한된 능력 범위 내에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

1)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형적 환경’ 속에 싸여서 살아가고 있다.

어떠한 대상을 보고 형태 및 구조와 질서를 파악하게 하는 ‘보는 일’은 곧 ‘시각적 사고’이다. 즉 수학자는 수의 논리에 따라 사고 하지만 미술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머리 또는 손으로 매만지면서 사고한다. 원시인이나 어린이 초기의 ‘생동하는’ 미술 표현은 미술이 시각적 감각을 통한 사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웅변해 준다. 피아제(J. Piaget)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에서 본능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고 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생각하는 실현을 보

이기 위하여 자기의 개념을 몸짓이나 대상물로 상징해 내고 모방이나 그림으로 사물을 묘사해 내려한다고 하였다.

고대의 원시인들에서부터 미술활동은 창조적인 유희이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곤 했다. 그들은 원하는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동굴 벽에 동물을 그려 놓고,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사냥하는 행위를 연습했다. 이처럼 미술 활동은 말이나 몸짓처럼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자기표현의 방법이다.

자기를 나타내는 데는 무의식적이거나 기본적인 감정의 표출과 함께, 자신의 의사를 남에게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 있다. 표출이 전달 의사 없이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일이라면,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미술을 자기표현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모든 미술활동이 자기표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작품의 내용면이나 표현 면에서 직·간접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을 표현의 매개체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의 누설’과 ‘감정의 표현’을 구분해야 하듯이 주제나 소재 면에서 자기 자신이 모티브가 되는 자기표현과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자기 표현적 요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이 표현의 모티브가 되는 자기표현은 작품 속에 자신을 등장시키는 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자신의 경험, 즉 생활사나 사회 안에서의 경험이나 상상 속의 경험까지도 포함한다.

자기표현이 강조되기 시작 하는 데는 듀이(J. Dewey)의 실용주의 철학과 프로이드(S. Freud)의 심리학의 영향이 있었듯이, 자기표현을 돕는 교과로의 운영을 위해서는 미술교육의 범위와 역할을 미술 자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언어적 자기 표현적 요소를 지닌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지닌다면 좀 더 총체적인 자기표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자기표현이라는 말이 미술교육에 사용될 때 그것의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로웬펠트(Lowenfeld)에 의하면 자기표현(self-expression)이란 말은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며, 어떤 구체적 표현대상이나 의미 없는 난화(scribble)와 웅알이(babble)도 잠재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창조 형태이며 자기표현 방법일 수 있다. 난화(scribble)와 모방에 의존한 형태가 꾸밈없

고 수준 있는 미술 표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은 자기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표현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 넓게 전달하는 능력이라면,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과의 하위 목표인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는 미술과의 교육내용 자체가 자기표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은 미술 교육 사조 중 낭만주의 관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미술교육에 관한 낭만주의적 관점은 루소(J. Rousseau) 이래의 전형적인 낭만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근본적으로 예술경험이 자아표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술교육은 실용적 목적이나 아카데미한 미술공부에 의해 억압, 폐쇄되지 않고, 정서를 해방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학생들의 미술 경험 그 자체가 가지는 인간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미술이 사실적, 재현적인 묘사 주의에서 벗어난 20세기 초의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 한편 자기표현이 청소년들에게 미술의 주제가 되어야 함은 청소년기에 많은 표현의욕의 좌절과도 관계가 깊다. 미술 표현의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는 시각적 인식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경향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욕망이 커진다. 그러나 표현력의 미숙으로 그 욕망이 미처 성취되지 못하고 실망하게 됨으로써 미술 자체의 표현의욕이 저하되고 억압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본능적인 욕구와 의혹들, 그리고 문제점과 정서적인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표현의 소재로 활용되고, 영역 구분 없이 자아를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될 때 자신들의 경험을 신뢰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아성장을 북돋을 수 있다. 요컨대 자기표현을 돕는 미술 교육은 미술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경험들에 의해 형성되며 이런 경험은 개인적이고 교육적인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가능성, 가치관 등을 형성시킬 수 있다. 결국 자기표현은 미술을 통한 자아와의 만남, 사회와의 조화로 전인 교육의 정신에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정신지체아의 자기표현과 조형 활동

대부분의 정신지체아들은 많은 영역에서 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고 표현 능력이 낮기 때문에 문자나 언어를 통한 지도보다는 본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술 활동을 통한 지도가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미술표현 활동은 중요한 자기표현 수단으로 지적결함으로 인해 비록 표현효과의 수준이 낮을지라도 그들의 내면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외부세계와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다른 영역의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지체아는 그림 그리기와 조형 놀이를 좋아한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지각이나 경험을 조형 언어를 통하여 내면세계와 자기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즐긴다. 즉 미술은 내면에 간직된 인간감정을 자유롭게 꺼내는 동시에 카타르시스(Catharsis)⁵⁵⁾효과를 가지는 감정교류의 조정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정신지체아의 미술 교육과정은 유치원 미술교육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짧은 집중력과 제한된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료의 제한된 선택과 짧은 활동의 반복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을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치원의 미술교육과정은 정신지체아의 생활연령을 무시한 교육과정으로 중·고등부 학생의 미술교육과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정신지체학생의 생활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을 경험하게 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수준의 미술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즉 정신지체아의 일반적인 성숙상태는 일반아동에게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형태 표현 발달’을 통해서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정신지체아들은 일반아동과 같은 발달패턴을 보여 준다. 다만 속도에 있어서 대단히 느리고 또한 7~9세의 상징적, 도식적 표현단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신지체아는 일반아동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정신지체아의 예능과 목표는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풍부한 정서생활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로 학습 내용면에서는 크게 지각활동, 표현

55) 그리스어로 ‘정화’라는 뜻이다. 비평 용어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Poetica>에서 진정한 비극이 관객에게 주는 효과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은유로 이 은유는 의학 용어인 ‘카타르시스’에서 유래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비극의 목적은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이런 감정들을 정화하는 것이다.

활동, 감상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적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본 결과 전에 비해 그리기 표현보다는 종합적 표현기능이 요구되는 공작놀이, 즉 조형 표현활동 영역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평면적인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던 기능주의적, 제재주의 미술교육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학생 스스로의 표현 방법을 통한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기능적이고 인지적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림그리기 보다는 오리고, 붙이고, 쌓고, 부수는 등의 행위를 표현활동으로 끌어들여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할 수 있는 조형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신지체아와 같은 특수아의 예술의 가치는 사회적 성장 외에도 창의적 경험을 하는 즐거움과 자신을 표현하는 만족감등을 통해 심리적 정화(catharsis)를 하고 나아가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을 성장시킨다.

그러나 정신지체아들의 미술표현에서 보면 자기 나뭇대로의 자기특징을 그림에 표현하는 '자아정체성'의 결여로 매우 단조로운 형태개념이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고 있으며, 빈약한 사회적응력 때문에 화면을 하나의 전체로서 의식하는 전체적 구성능력(gestalt organization)이 현격히 떨어져 잘해야 도식적 공간 표현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발달 특성을 가진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갈등과 좌절에 부딪쳐 자신감을 잃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정신지체 아동의 자기표현은 장애의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신지체 아동들의 자기표현 제한은 인지적 문제 외에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신지체아들의 미술표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간 구성력

근본적으로 정상아의 형태표현 발달과 같은 패턴을 보이나 그 발달 속도가 매우 느린 특징이 있다.

화면의 공간 구성력과 형태는 단순하고 빈약하며 인지구조의 미분화 특징 때문에 화면구성이 변칙적이다. 즉 화면의 전체적 구성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며 잘

해야 도식적 공간 표현단계에 도달할 수 있고 위치개념과 공간관계 개념 등이 잘 발달되지 못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아의 공간개념 발달단계는 정상아와 마찬가지로 순서로 각 단계가 나타나는 연령과 변화의 속도가 다를 뿐이며 정신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준도 더불어 증가한다. <그림 8> 과 <그림 9> 는 공간을 생각하고 묘사해 내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작품의 예로 <그림 9> 는 원근법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의 깊이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8> 리듬체조 · 정신지체 19세 · 남 <그림 9> 결혼식 · 정신지체 17세 · 여
출처: <그림 8> 과 <그림 9> 는 연구대상 학생의 그리기 작품이다.

(2) 색채

정신지체아의 색채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전체적으로 파랑과 초록이 많이 쓰여 진다. 색의 조합에 있어서는 노랑, 보라색과 다른 색의 조합이 두드러지고, 빨강과 초록의 대조도 나타난다.”⁵⁶⁾ 이와 같은 주조 색으로 정신지체아들은 자신감, 자제력, 조심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무기력하며, 슬픔에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학년에서는 공격성과 적개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고학년에서는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에 불안을 느껴 의존적이고 순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노랑과 보라를 거의 같은 정도로 많이 쓰는 것으로 보아 유아적 경향, 대인관계의 부적응, 애정의 요구, 도피증, 적개심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지적으로 지체되어 있음으로 해서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0> 과 <그림 11> 에서 보듯이 “색채는 개인의 심리 상태를

56)김정 (1982), 「아동화의 이해」, 창지사, p.210.

반영할 수 있으나 미술표현은 근본적으로 극히 개별적인 현상이므로 색채의 선호와 심리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고 색채를 다양하게 사용 하는 것에 대한 흥미 역시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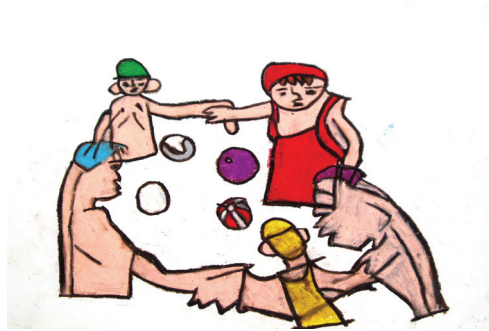


〈그림10〉 신나는 우주여행 · 정신지체 17세 · 남 〈그림11〉 어젯밤 꿈 · 정신지체 17세 · 남
출처: 〈그림10〉 과 〈그림11〉 은 연구대상 학생의 그리기 작품이다.

(3) 화선

김정의 연구에 의하면 “원과 점, 난잡한 선, 강한 선 등이 화선의 특징이다. 고학년에서 강한 선이 많으며 다음으로 무질서한 선이었으며, 저학년에서 원과 점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강한 선 순서였다.”⁵⁷⁾고 하였다. 강한 선은 내적 에너지가 강한 것을 말하며, 난잡한 선은 비합리적이거나 우유부단하고 소극적 태도를 의미한다. 〈그림 12〉는 노랑과 검정의 강한 색상대비와 자유로운 선이 감각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평소 주위 사람들로부터 참 예쁘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들어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데, 이 그림은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생각된다. 특히 눈, 코, 입, 귀 등의 표현이 인상 깊다. 또한 〈그림 13〉은 굵은 선이 끊김이 없이 직관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기성작가 못지않은 선의 형태로 조형감이 뛰어난 표현이다.

57) 김정 (1984),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교육과학사, p.321.



〈그림 12〉 우리엄마 · 정신지체 17세 · 여 〈그림 13〉 바닷가에서 · 정신지체 20세 · 여
출처: 〈그림 12〉와 〈그림 13〉은 연구대상 학생의 그리기 작품이다.

(4) 그림의 내용

그림의 내용은 집, 사람, 나무, 차등 소재가 국한되어 있는 편이다. 자연 풍경을 그리는 아이들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집, 사람, 교통수단, 동물이 나타나는데 이런 점에서 분석해보면 정신지체아들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열등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형감이 없이 무질서한 선화로만 굵적거린 그림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 지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⁸⁾ 〈그림 14〉는 가족의 모습을 만화처럼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또한 〈그림 15〉는 소풍가서 즐거웠던 경험을 자유롭게 나타낸 작품이다.



〈그림 14〉 우리가족 · 정신지체 17세 · 남 〈그림 15〉 즐거운 소풍 · 정신지체 19세 · 여
출처: 〈그림 14〉와 〈그림 15〉는 연구대상 학생의 그리기 작품이다.

58) 김재은 (1994),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 진단」, 교육과학사, p.321.

이와 관련하여 지적 장애와 적응행동에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학생에게 미술활동은 중요한 자기표현 수단으로 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징을 일찍부터 지각하고 구사하게 하는 일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신지체아동을 지도하고 고무하는 접근 방식은 그들의 촉각적인 지각의 방법과 신체적·정서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아의 자기표현 수단이자 지적, 정서적, 사회적, 창의적 도구로 사용되는 미술표현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⁵⁹⁾

- ① 성장의 속도는 느리지만 정상적인 성장 패턴을 보여 준다.
- ② 단조롭고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주지만 손의 운동 기능은 뒤지지 않는다.
- ③ 형태나 주제의 고착적이고 반복적인 표현에 빠져 있으며 실험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 ④ 공간의 전체적인 특성을 보지 못하고, 전체적 공간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변 활동을 지각하는데 있어 좀 더 확대된 연상능력과 활력이 부족함을 말해준다.
- ⑤ 촉각적 형태의 경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표현 특징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지도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다.

- ① 형태나 공간에 대해 감수성이 풍부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 ② 자아나 환경에 대한 지적인 개념이 풍부해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 ③ 이미 습득하고 있는 개념들을 좀 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 ④ 좀 더 깊은 정서적인 감수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⑤ 사회적인 접촉을 넓히고, 자신감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정신지체아는 미술활동에 있어서 정상아동과 비교할 때 발달의 속도가 느리고 수준이 낮지만 그 기본적인 발달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지체아의 미술표현은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수평적 진행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김정희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아동

59)김춘일(1990), 「아동미술론」, 미진사, pp.241~242.

은 거의 지능지수 50이상을 표현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뇌와 눈과 손놀림의 세 가지가 서로 불협을 이루는 것, 즉 안수 협응에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들은 동기 유발에 있어서 매우 활동적이고 반복 행동적이며, 좀 더 흥미 있는 다양한 동기화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느리고 무딘 감수성을 개발하고 빈약하고 고착된 개념의 틀을 좀 더 풍부하게 하여 보다 쉽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3) 정신지체 학생과 도예교육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제각기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여 자기실현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 이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신지체아라고 해서 예외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지체아라 할지라도 그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으로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을 받으면 그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가능성을 개발시키기 어려우며, 이에 그들 나름대로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자기 만들기를 위한 전반적인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도예활동은 손기능 발달의 전 단계에 걸쳐 좋은 훈련 과정이 되며 나아가 기교적인 수지기능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고 활동량이 많아 대근육 발달에도 효과적이다.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작업치료는 “사회적 자립의 기초를 이루는 활동능력의 향상과 작업적 가능성의 확장을 위한 사지(특히 상지)기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로 상지를 중심으로 선택된 동작의 반복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내용체계로는 상지동작, 일상생활 기본동작, 신체의 응용동작, 작업동작 등이 있다. 상지동작은 여러 가지 놀이·운동·일을 통하여 상지의 다양한 치료를 경험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손의 기초기능을 습득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용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손 기능은 정신지체 학생의 일상생활동작, 작업 및 직업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손 기능

을 향상시켜 학생의 일상적인 학습·생활 활동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손 기능 훈련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직업적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장애 사회인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신지체아는 미술학습에 있어서도 천천히 학습하므로 실패 감을 맛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작품을 표현 하는데 있어서 많은 피드백이 요구되며 이런 피드백은 학생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표현 경험을 재미있게 전개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조형적 표현 놀이의 측면을 갖고 있는 도예활동은 정서적인 불안 요인을 가진 정신지체아에게 표현의 즐거움과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며, 감각훈련을 통한 협응 능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흙을 만지고 주물러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근육, 대근육이 발달하고 수지기능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정신지체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모방과정을 거쳐 스스로 표현하는 법을 익히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 적당한 동기부여를 하고 하나하나의 활동에 긍정적 평가와 칭찬으로 표현 욕구를 더욱 더 키워주어야 한다. 이처럼 도예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본 지도원리가 있다.⁶⁰⁾

(1) ‘흥미’를 유발 시킨다.

정신지체아가 가지고 있는 흥미는 도예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예활동에 흥미를 가지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야 한다. 스스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구는 도예활동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다. 그래서 수업 재제를 제시할 때는 흥미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도입 방법이 필요하다.

(2)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 재제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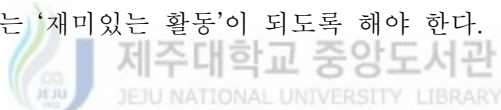
정신지체아들은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흥

60)권후범(1997), “도예교육을 위한 수업모형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p.21.

미를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예지도에 있어서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나 작품들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내용 역시 이 점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도예 표현 제재는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릇, 토기, 장신구, 타일 등 다양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활동 중심으로 지도해야 한다.⁶¹⁾

루소(J. Rousseau), 페스탈로찌(J. Pestalozzi) 프뢰벨(F. Froebel), 몬테소리(M. Montessori) 등의 교육가들이 주장하는 ‘직관적 교수법’의 정신이 이에 해당한다. 정신지체아의 경우 유아처럼 그 정신 능력의 발달이 구체적·지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들의 미술 지도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따라서 추상적 개념의 제시나 조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을 눈앞에 놓고 그것을 관찰, 조작, 비교, 시범, 탐색하는 체험 중심 지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재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간단한 작품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반복적 지도를 한다.

정신지체아들은 지적능력의 한계로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재미있는 활동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지도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만들려고 하는 수업목표가 너무 크면 학생들이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또한 도예활동은 끊임없는 습작에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훈련이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목표는 간단하게 잡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회성 활동 경험으로는 도예에 대한 일정한 ‘생각’이나 의식을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작품이나 활동을 몇 번 되풀이 하여 강화시킴으로써, 도예를 이해하게 되고 작품 활동에 안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

61)안영기외(1990), 「꾸미기와 만들기」, 미진사, pp.220~221.

(5) 정신지체아의 표현활동을 존중하며 교사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도예교육이 가지는 효과 중 하나는 자연 속의 흙과 친숙해지고 이를 통한 정서적 순화에 있다. 그러나 흙을 통한 수업은 주변이 더럽혀지고 정리정돈이 힘들다는 맹점이 있고, 정신지체아들은 흙을 가지고 학습하다보면 굉장한 즐거움을 느껴 장난을 치는 경우도 무척 많다. 아마도 이것은 자연과의 친화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기본적인 활동⁶²⁾일수도 있고, 이런 활동과정에서 창의적인 작품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흙과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장난을 심한 꾸중이나 체벌로 그들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또한 표현활동 중에 학생들의 장난 어린 표현을 수업과 무관하다하여 제지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활동 속에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신지체아들의 표현활동을 존중해 주고 격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신지체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현 욕구를 꾸밈없이 나타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도예 수업이 어렵거나 힘들다기보다는 단지 표현하다가 흙이 마음과 같이 고정되거나 굳어지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는 학생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은 교사가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지체아 역시 교사의 인정과 격려 속에서 용기를 얻어 표현욕구가 더욱 더 강렬해 진다.

(6) 통합적으로 접근 한다

정신지체아의 경우 지각이나 사고의 분화가 원만하지 못해서 미분화된 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잡하고 섬세한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학습을 어렵고 지루하며 효과 없게 만들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통합적인 활동의 전개가 더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통합적 지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첫째, 내용적 통합이다. 즉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쓰기 등 미술 내적인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내적 통합이다.

둘째, 여러 가지 생활과 학습의 범주들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통합되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즉 영역간의 외적 통합이라 할 수 있다.

62)이규선 외(1997), 「유아미술교육학」,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학문사, p.563.

셋째, 방법적 통합이다. 즉, 지도과정에서 하나의 중핵적(언어, 인지, 건강, 정서, 사회 등)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되 여기에 다른 학습내용이나 활동과 관련짓고 연합하여 융통성 있는 활동이 되게 하는 것이다. 즉, 정신지체아의 일상생활 경험, 가정이나 사회의 관심사, 놀이, 행사등과의 폭넓고 자연스러운 관련 및 통합이다. 따라서 '생활경험'의 한 모습으로서 미술학습이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7) 직접적인 평가는 지양한다.

수업에서 평가는 매우 어려우며 그 평가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교사는 직접적인 평가는 되도록 피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며, 학생들끼리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⁶³⁾



63)이규선외(1994),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p.352.

3.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예 교육과정

1) 도예활동 과정 안 구성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도자기 성형 기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수공 성형 기법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해 놓고 작품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는 도예 수업을 통한 점토 표현의 이해를 돕고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단 표현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여 조형능력 및 창의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1) 도예활동 과정 안 구성 원칙

- ① 정신지체아의 조형 능력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도예의 제작과정에서 기법을 단순화시켜 정신지체아의 능력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 ② 도예 활동의 기초 단계는 우선 흙 만지기 등으로 시작하여 도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론보다는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 ③ 도예활동의 난이도를 분석하여 과정의 순서와 내용을 정하였다. 기초 훈련 단계→평면적인 모양 표현하기→입체적인 형태 표현하기 등의 순으로 간단한 것에서부터 차츰 발전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 ④ 성형방법으로 손으로 빚어 만들기(핀칭), 흙 줄로 만들기, 흙 판으로 만들기, 속 파서 만들기 등의 수공성형 작업을 위주로 구성 하였다.
- ⑤ 성형의 과정을 거쳐, 초벌구이, 그림그리기, 유약 시유하기, 재벌구이의 전 과정을 모두 체험하도록 구성하였다.
- ⑥ 정신지체아의 특유의 순수하고 독특한 미적표현을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⑦ 협동작업의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협동작품을 제작하였다.

(2) 정인지체아의 특성을 감안한 수업적용의 실제

앞에서 언급한 정인지체아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예활동의 기초적인 성형방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표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평면에서부터 입체적인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 - 학습 과정 안을 개발하여 수업의 실재를 분석하였다.



〈표 1〉 도예활동 과정 안

<p>목표</p>	<p>흙의 성질을 알고 여러 가지 표현 가능성을 탐색 할 수 있다.</p>
<p>도예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의 종류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젖은 흙의 색과 재벌 후의 색으로 구분을 한다. - 청자 토, 백자 토, 조합 토, 슈퍼 화이트 등 • 도예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 자르는 줄, 파내기 도구, 빗주걱, 삼각주걱, 밀대, 돌림판, 천, 보조 틀, 붓 • 흙 이기기(고박밀기)의 요령을 익히고 연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두고 꾸준히 반복하여 연습해야 한다. • 표현 가능성을 탐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를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만들게 하여 표현가능성을 탐색한다. - 즐겁게 흙 놀이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 가능성을 경험시킨다. •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점토 덩어리를 이리 저리 친다. - 쥘다, 뭉친다, 짓누른다, 두들긴다. - 비빈다, 만다, 굴리거나 비빈다. - 구부린다, 접는다, 비튼다, 떠낸다. - 붙인다, 빚는다, 두들긴다, 꿇는다. - 뜯는다, 끊어낸다, 깎아낸다, 구멍을 뚫는다. - 선을 그어 넣는다, 꽃는다, 눌러 흔적을 남긴다. 등. • 자유롭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점토로 만들고 싶은 것을 구상하여 자기 생각대로 만든다.
<p>유의점</p>	<p>지나친 발상 유도나 제작 방법의 지도 보다는 흙의 성질을 자연히 알 수 있도록 자연스런 분위기속에서 수업을 진행한다.</p>

〈표 2〉 도예활동 과정 안

<p>목표</p>	<p>손으로 빚어서 작은 기물을 만들 수 있다.</p>
<p>도예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자기에 대해 발표한다. - 접시, 컵, 식기 등 흔히 쓰는 물건을 발표한다. - 각각의 모양과 용도를 생각하며 발표한다. - 교사가 준비한 사진 자료나 실제 도자기를 보여준다. -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생활 도예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한다. ● 흙과 친숙해지기 - 흙을 주무르고, 뭉치고, 끊고, 비비고, 말아보는 다양한 활동을 해 본다. ● 표현하기 - 자기 주먹 만한크기의 흙을 떼어내어 테니스공처럼 둥글게 만든다. - 둥글게 뭉쳐서 흙덩어리의 중심부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후 한 손으로는 흙덩어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엄지와 집게 사이에 흙을 쥐고 밖으로 벌려가면서 그릇을 만든다. - 그릇의 기본 모양을 완성하여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 손잡이, 뚜껑, 받침대 등의 다양한 장식품을 붙일 때 꼼꼼하게 잘 붙인다. - 공구를 사용하여 무늬나 그림 등을 그릇의 표면에 그린다. ● 감상하기 - 완성된 작품을 교실의 일정한 위치에 올려놓고 친구들 작품과 비교해본다. - 잘 만들어진 작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잘된 점을 칭찬해 준다. - 정리 및 차시 예고 - 남은 흙은 비닐봉지에 잘 싸서 보관하고 주변을 청소 한다
<p>유의점</p>	<p>대다수의 학생들이 흙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흙이 갈라져 기물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되도록 두껍게 만들도록 하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흙이 마르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p>

① 수업결과

처음에는 그릇을 어떻게 만들까 난감해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차차 흙을 가지고 유희적 활동에 큰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빗어서 만드는 기술적인 지도 없이 시작하자 학생들이 아주 작은 놀잇감을 만드는 수준의 찻잔이나 그릇을 만들었다. 크게 만들어 보라고 요구하자 학생들을 흙을 넓게 펴서 다시 오므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자기 주먹만큼 한 테니스 공 형태의 덩어리를 만들게 하고 나서 빗어서 만드는 기술적인 면을 지도하였더니 학생들이 비교적 그릇 만드는 활동에 흥미를 느껴 2~3개를 계속해서 만들기도 하고, 뚜껑, 받침, 손잡이 등 장식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작품 1-1> <작품 1-2> <작품 1-3> <작품 1-4> <작품 1-5> <작품 1-6> 은 빗어 만들기 수업의 결과물이다.

② 문제점과 해결 방안

대부분의 학생들이 흙을 이용한 다양한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있으나 도예작업은 매우 미숙하였다. 특히 흙을 뭉쳐서 표현하거나 작게 만들어 붙이는 활동은 익숙했지만, 흙을 뭉쳐서 벌러가며 하는 도예 작업은 자꾸 벌어지고 갈라지는 현상에 힘들어 했다. 이때 분무기나 젖은 스펀지 등을 사용하여 적당한 수분을 공급해 주면서, 다시 점력을 되찾도록 해서 붙이도록 하였다.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여 기물이 주저앉아 버린 학생도 있었으나 선형적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였다.

③ 다양한 수업모형 제시

빗어서 만들기의 수업모형을 제제로 그릇 만들기를 하였다. 빗어서 만들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다.

개별적인 만들기 보다는 4~5명의 소그룹으로 놀잇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살림 장비를 만들게 하여 직접 놀이도 해 보게 한다. 그룹으로 만들면 그릇이나 물건들이 너무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큰 그릇을 예를 들어 술, 밥통, 냄비 등 크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보도록 지도 한다.

〈표 3〉 도예활동 과정 안

<p>목표</p>	<p>흙 줄을 말아 쌓아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p>
<p>도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자기의 쓰임새를 알아본다. - 쓸모 있는 그릇, 화병, 수반 등 쓰임새와 관련지어 발표한다. ● 우리나라 고유의 도자기에 대한 특징과 아름다움을 이야기 한다. -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의 모양이나 색에 대해 알아본다. ● 교사가 준비한 사진 자료나 실제 도자기를 보여준다. -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 작품을 감상하며 용도와 모양을 이야기 한다. ● 구상하기 - 비교적 크게 만들기로 하고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 흙을 비비고, 두드리고, 뭉치고, 말고 하면서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어 심상표현을 한다. ● 표현하기 - 구상한 형태의 밑바닥을 손바닥이나 밀대를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만든다. - 흙을 손바닥으로 밀어 흙가래를 만든다. - 안쪽 면은 도예 도구나 손을 이용하여 다듬는다. - 바깥면도 공구나 손을 이용하여 매끄럽게 다듬거나 그냥 나눠서 흙 줄의 재질감을 살린다. - 만들고자 하는 대상을 느낄 수 있게 전체와 부분을 살피면서 가다듬어 만든다. - 원하는 모양이 완성되면 어울리는 장식을 해본다. - 장식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붙인다. - 표면에 공구를 사용하여 회화적 표현으로 모양을 낸다. ● 완성된 작품을 교실의 일정한 위치에 올려놓고 친구들 작품과 비교하고 감상 한다. ● 정리 및 차시예고 - 남은 흙은 비닐봉지에 잘 싸서 보관하고 주변을 청소한다.
<p>유의점</p>	<p>흙 줄을 쌓아올릴 때 흙 줄 간의 접합이 잘 되도록 지도하여 건조되면서 갈라지지 않도록 한다.</p>

① 수업 결과

흙 줄 만들기는 학생들이 집에서 밀가루 반죽의 경험이 있어서 즐겁게 참여하였다. 흙 줄을 만드는 기술적인 방법을 지도하지 않아도 흙 줄을 곧잘 만들었으며 흙 줄을 쌓아 화병 등 여러 가지 만들어 가는 활동에서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많이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흙 줄의 굵기가 일정하였고 아주 정교하게 쌓아 올리게 되었다. 또한 흙을 떼어 덧붙이거나 흙 줄의 재질감이 살린 작품에서 학생들의 조형성이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 2-1>, <작품 2-2>, <작품 2-3>, <작품 2-4> 는 흙 줄을 말아서 만든 초기 작품이며 <작품 2-5>, <작품 2-6> 은 투각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2-7> 은 선각으로 그림을 그려 회화적으로 표현했고, <작품 2-8> 은 흙 줄을 아주 가늘게 밀어 섬세하게 올려 쌓았다. <작품 2-9>, <작품 2-10> 은 작은 형태를 만들어 덧붙여서 표현했고, <작품 2-11>, <작품 2-12> 는 흙을 조금씩 떼어내어 덧붙여서 표현한 작품이다.

② 문제점과 해결방안

흙 줄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흙 줄을 쌓아 올리면서 접합을 잘 하지 않으면 잘 붙지 않아 무너지거나 소성 후 물이 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물을 담은 화병은 안쪽과 바깥쪽을 과감하게 손으로 쓸어내려 잘 붙이도록 지도 하였다.

③ 다양한 수업 모형 제시

흙 줄을 말아 쌓아 만들기는 점토의 성질을 알고 다루는 방법이 터득하게 되면 자신의 원하는 형태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표 4> 다양한 수업 모형

수업제재	수업목표
떡국 만들기	명절에 보았던 떡가래를 흙 줄로 만들 수 있다.
필통 만들기	흙 줄을 쌓아 둥근 모양의 필통을 만들 수 있다.
저금통 만들기	흙 줄을 사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저금통을 만들 수 있다.
그릇 만들기	밥 그릇, 국그릇 등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 수 있다.

〈표 5〉 도예활동 과정 안

<p>목표</p>	<p>내가 갖고 싶은 장신구를 만들 수 있다.</p>
<p>도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신구가 무엇인지 발표한다. - 재미난 모양의 장신구 등을 소개한다.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신구를 소개한다. ● 구상하기 - 자신이 만들고 싶은 모양의 장신구를 생각해 본다. ● 흙과 친숙해지기 - 흙을 주무르고 뭉치고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흙과 친숙해진다. ● 표현하기 - 적당한 크기의 장신구 형태를 만든다. - 여러 가지 모양이나 문양을 넣어 표현한다. - 찍어서 표현, 붙여서 표현, 그려서 표현, 부조적 표현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양을 낸다. - 장신구 윗부분에 줄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 적당한 위치에 두고 건조시킨다. - 완전한 소성과정이 끝난 경우에는 줄을 단다. ● 감상하기 - 완성된 작품을 교실의 일정한 위치에 놓고 친구들 작품과 비교 감상해 본다. - 어떤 장신구가 가장 가지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눈다. ● 정리 및 차시예고 - 젖은 흙은 분무기로 물을 축여서 비닐봉지에 잘 싸서 보관하고 주변을 잘 정리한다.
<p>유의점</p>	<p>장신구를 비교적 크게 작업하도록 하고 표현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지도 한다.</p>

① 수업 결과

학생들은 목걸이 등 장신구를 만든다는 자체만으로도 무척 즐거워하였다. 만드는 과정도 즐거울 뿐 아니라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으로 흥분하였다. 재미있는 얼굴 모양의 장신구를 보면서 그 소재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학생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평면적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적 표현의 작품까지 학생들의 개성이 그대로 표현되는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작품 3-1>, <작품 3-2>, <작품 3-3>, <작품 3-4>는 장신구 만들기 결과물이다.

②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성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구멍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줄이 들어갈 위치와 구멍의 크기를 고려하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예작업은 평면 회화작품처럼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을 얻기 어려우므로 복잡하고 섬세한 표현의 작품보다는 단순한 형태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장신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흙을 아주 조금씩 떼어내어 부조적 표현을 하는데 이는 소성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고하고 섬세하게 붙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건조되지도 않은 장신구를 빨리 목에 걸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 성형이 끝나자 바로 줄을 매서 작품을 망치는 학생도 있었다. 처음 장신구를 만드는 시간에는 소성과정을 생각하여 줄을 준비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③ 다양한 수업 모형 제시

장신구 만들기는 도예 표현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흥미 있어 했다. 소성과정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는 지점토를 활용하여 장신구를 만든 후 수채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마른 후 니스로 칠하면 된다.

〈표 6〉 도예활동 과정 안

<p>목표</p>	<p>흙 판에 부조로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p>
<p>도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입체인 부조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발표한다. - 동전이나 불국사 석굴암 둘레의 벽면에 만들어진 형상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 교사는 준비한 부조로 표현된 자료를 제시한다. ● 구상하기 - 친구들의 얼굴을 만들게 하여 친밀감을 가지게 한다. - 준비한 흙을 흙 판에서 빗기, 주무르기, 말기, 뭉치기, 떼기, 굽기, 붙이기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다. -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표현하기 - 두께 3cm 정도로 해서 원하는 형태의 판을 만든다. - 친구의 얼굴을 관찰 한다. - 흙 판에 흙을 붙여가면서 눈, 코, 입, 눈썹, 머리카락, 귀 등을 표현 한다. - 어느 정도 완성되면 세부적인 곳을 마무리 짓는다. - 작품 전체를 보아가며 부족한 부분을 고친다. ● 감상하기 - 완성된 작품은 교실의 일정한 위치에 올려놓고 친구들 작품과 비교 감상해 본다. - 잘 된 친구의 작품은 칭찬해 준다. ● 정리 및 차시예고 - 남은 흙은 분무기로 물을 뿌려 비닐로 잘 싸서 보관하고 주변을 정리정돈 한다.
<p>유의점</p>	<p>흙 판의 모양과 규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고, 흙 판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교적 두껍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p>

① 수업 결과

먼저 두꺼운 흙 판을 만든 후 흙을 붙여 가면서 인물표현을 했다. 학생이 얼굴을 그림으로 표현 하였을 때 다양한 인물이 표현되었듯이, 부조 표현에서도 각양각색의 표현이 만들어져 나왔고 평면적 표현과 거의 동일한 공간으로 입체표현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 또한 소성 후 학생 개개인의 작품들을 하나의 협동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자, 전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다. <작품 4-1>, <작품 4-2>, <작품 4-3>, <작품 4-4> 는 인물을 중심으로 표현한 초기 작품이며, <작품 4-5> <작품 4-6> 은 각각 돌하르방과 소나무의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작품 4-7>, <작품 4-8> 은 돌하르방의 이미지와 제주의 자연의 모습을 협동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② 문제점과 해결방안

흙을 가지고 부조로 표현하는 것을 처음 접한 학생들이 많았다. 흙 판에 흙을 붙여 가면서 눈, 코, 입, 머리카락 등을 표현하도록 지도하였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면에 나타난 회화적 표현 이미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였다. 특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학생들이 흙을 아주 조금씩 떼어 붙이는 표현이 많이 나타났는데, 표현의 두려움에서 오는 작고 절제된 현상이었다. 이러한 점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인물 표현을 강조하여 코는 피노키오 코처럼 길고 크게 만들어 붙이고, 입은 아프리카 토인들처럼 두툼하게 붙여 표현하게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은 점점 대담해지고 과감해지기 시작하였다.

③ 다양한 수업 모형 제시

<표 7> 다양한 수업 모형

수업재제	수업목표
친구 얼굴 표현하기	친구 얼굴을 보고 부조로 표현 할 수 있다.
재미있었던 경험표현하기	재미있었던 경험을 부조로 표현 할 수 있다.
동전 만들기	창의적인 동전을 만들 수 있다.

〈표 8〉 도예활동 과정 안

<p>목표</p>	<p>흙 판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p>
<p>도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 주변에서 도형의 모양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건물이나 물건들을 알아본다. - 교사는 도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례나 사물 등을 보여준다. -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물들도 도형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해 준다. • 구상하기 - 흙으로 판을 만들어 서로 붙여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해 본다. - 세모난 집, 네모난 컵, 빌딩, 주사위 등 • 흙과 친숙해지기 - 흙으로 작은 모형 등을 만들어 본다. • 표현하기 - 흙을 네모나게 뭉치고 벽돌처럼 자른다. - 적당한 양의 흙을 밀대로 밀거나 손으로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든다. -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그린 후 모양대로 자른다. - 필요한 판을 비교적 여유 있게 만든다. - 만든 흙 판 끼리 잘 붙여서 표현하고자 하는 모양을 만든다. - 붙여진 곳이 마르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인다. - 형태가 완성되면 다양한 장식과 그림을 그린다. • 감상하기 - 완성된 작품은 교실의 정해진 곳에 놓고 친구들 작품과 비교하고 감상해 본다. - 잘 만든 작품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다. • 정리 및 차시예고 - 남은 흙은 분무기로 물을 축여서 비닐봉지에 잘 싸서 보관하고 주변을 잘 정리한다.
<p>유의점</p>	<p>흙 판을 붙여 만들 경우 판과 판의 접합 부분은 마르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흙을 덧붙여서 튼튼하게 접합해야 한다.</p>

① 수업 결과

학생들은 흙으로 여러 가지 판을 만드는 작업에 흥미를 가졌다. 삼각형, 사각형, 원, 마름모 등 다양한 도형을 만든 후 이것들을 서로 붙여 표현하는 활동으로 육면체(주사위)를 만드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여학생은 보통 집이나 흙 판을 말아서 꽃병을 만들었다.

〈작품 5-1〉은 흙 판을 얇게 밀어 만든 접시이고, 〈작품 5-2〉는 흙 판을 두껍게 하여 만든 접시로 굽을 만들고 회화적인 장식을 하였다. 〈작품 5-3〉은 판과 판을 접합시켜 만든 집이다. 〈작품 5-4〉는 흙 판을 두껍고 짧게 자른 후 사각형의 도형을 올려 쌓아 표현한 작품이다.

② 문제점과 해결방안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얇은 판을 만들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흙덩어리를 얇게 퍼는 활동에 흥미를 갖는 결과였다. 학생들에게 흙 판을 비교적 두껍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두껍게 만들도록 지도하였다. 판과 판을 붙이는 활동에서 흙 판에 수분이 많아 무너지거나 또는 너무 건조되어 접합되는 부분이 잘 붙지 않아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경우는 접합되는 부분을 흙물을 만들어 보강하거나 다른 흙으로 붙이도록 하였다.

③ 다양한 수업 모형 제시

〈표 9〉 다양한 수업 모형

수업재제	수업목표
상자 만들기	흙 판을 이용하여 재미난 상자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집 만들기	흙 판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다.
입체도형만들기	수학 시간에 배운 다양한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다.
그릇 만들기	흙 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다.

〈표 10〉 도예활동 과정 안

<p>목표</p>	<p>무늬를 찍어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p>
<p>도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장을 찍거나 무늬찍기 놀이 경험을 발표 한다. - 도장을 찍으면 글자가 찍힌다. - 무늬가 있는 물건을 흙에 찍으면 무늬가 베껴져 나온다. - 교사가 준비한 자료나 참고 작품을 보여준다. - 비가 온 뒤에 진흙 길 위에 찍혀져 있는 발자국이나 동물 발자국 등을 보여주거나 직접 시범을 보여준다. ● 구상하기 - 어떤 사물을 찍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찍힐 수 있는 물건들을 책상 위에 내놓고 구상해 본다. - 적당한 양의 흙을 준비하여 손바닥 등을 찍어본다. ● 표현하기 - 찍을 사물을 생각하면서 흙 판을 적당한 크기로 만든다. - 나뭇잎, 신발, 동전, 손바닥, 돌 등 다양한 찍기 활동을 한다. - 물건을 찍고 난 흙 판에 손과 공구를 사용하여 모양을 낸다. - 장식이 필요한 곳에는 채색을 하거나 다른 흙을 붙여 표현한다. - 어느 정도 완성되면 세부적인 곳을 마무리 짓는다. - 작품 전체를 보아가며 부족한 부분을 고친다. ● 감상하기 - 완성된 작품은 교실의 일정한 위치에 올려놓고 친구들 작품과 비교 감상해 본다. - 잘 된 친구의 작품은 칭찬해 준다. ● 정리 및 차시예고 - 남은 흙은 분무기로 물을 뿌려 비닐로 잘 싸서 보관하고 주변을 정리정돈 한다.
<p>유의점</p>	<p>흙 판은 찍기 활동에 적합하도록 약간은 건조된 상태가 작업하기 편하다.</p>

① 수업 결과

찍어서 표현하는 수업은 여러 가지 도장이나 음각이 선명한 물건들을 가지고 흙에 찍어서 표현하는 활동으로, 도장, 손바닥, 발바닥, 나뭇잎, 철망, 신발, 돌, 등 다양하다. 학생들은 도장이나 돌을 찍어 표현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흙 판에 찍어서 표현하는 활동은 얼마든지 찍고 다시 찍으면서 실제의 형태와 찍힌 모양이 다름을 스스로 알게 하였다. <작품 6-1> , <작품 6-2> 는 꽃문양의 도장을 찍어 장식 해 준 작품이고 <작품 6-3> 은 철망을 이용하여 굵어 찍어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6-4> 는 흙덩어리에 작은 돌을 박히게 하고 그 위에 나뭇가지로 새의 형태를 만들어 표현한 것으로 돌, 나무, 흙의 조화로 더욱 더 멋있는 작품이 되었다.

② 문제점과 해결방안

학생들은 점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와 작업을 할 수 있다. 점토놀이는 완성된 도예 작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점토를 이용하여 흥미 있고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탐색하게 한 후 스스로 주제를 정해 표현하게 한다.

③ 다양한 수업 모형 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찍어 무늬 나타내기, 나란히 찍기, 어긋나게 찍기, 돌려 찍기, 세로 찍기 등 이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다.

<표 11> 다양한 수업 모형

수업재제	수업목표
손바닥, 발바닥 찍기	손바닥, 발바닥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다.
물건 찍어 표현하기	다양한 물건을 찍어서 표현 할 수 있다.
나뭇잎 찍어 표현하기	다양한 나뭇잎의 잎맥으로 표현 할 수 있다.

〈표 12〉 도예활동 과정 안

<p>목표</p>	<p>흙 인형 및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장면을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p>
<p>도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코타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 테라코타는 성형한 후 900℃ 정도의 저온으로 소성한 것이고, 도자기는 유약을 발라서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 신라시대 토우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 평소부터 만들고 싶었던 것을 이야기한다. - 찰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 구상하기 - 내가 만들고 싶은 장면을 정한다. • 표현하기 - 찰흙으로 커다란 덩어리를 만든다. - 자기가 생각한 친구의 표정, 동작 등을 대강의 형태로 만들고 그 특징을 잡아 표현한다. - 부분을 만들고 부분을 붙여 형태를 만든다. - 모양을 다듬어서 운동감이 나타나도록 표현한다. - 자신이 만들고 강조 하고 싶은 부분에 세부적인 표현을 한다. - 작품 전체를 보아가며 부족한 부분을 고친다. • 감상하기 - 완성된 작품을 교실의 일정한 위치에 놓고 친구들 작품과 비교 감상해 본다. - 자기 작품을 발표한다. - 잘 된 친구의 작품은 칭찬을 해 준다. • 정리 및 차시 예고 - 젖은 흙은 분무기로 물을 축여서 비닐봉지에 잘 싸서 보관하고 주변을 잘 정리한다.
<p>유의점</p>	<p>학생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며 스스로 자유롭게 대범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p>

① 수업 결과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장면이나,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것을 만들어 보라고 하자 인형, 친구 얼굴, 무서운 얼굴 등 재미있고 개성 있는 다양한 표현이 나왔다. 부분을 붙여 형태를 만드는 학생도 있었고 적당한 크기로 흙덩어리를 뚫 다음 그것을 주물러 대강의 인물 형태를 만들고 점차 세부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다. 특히 눈, 코, 입을 표현하자 훨씬 생동감 있는 표현이 되었다. 크게 만든 작품은 내부를 파주지 않으면 소성과정에서 무거워서 파괴된다는 것을 설명해주자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이 깨지면 안 된다는 진지한 표정을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내부를 파기 시작했다. 몇몇의 학생들은 파내는 과정에서 실패하여 아예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조적 표현과의 차의점을 설명하자 쉽게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살려 앞·뒤·옆을 보면서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였다. <작품 7-1>, <작품 7-2>, <작품 7-3>, 은 철사를 이용해서 대략의 형태를 만든 후 그 위에 흙을 덧붙여서 원하는 형태를 만든 후 다시 물감으로 채색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7-4>, <작품 7-5>, <작품 7-6> 은 바닷가에서의 추억을 테라코타로 표현한 작품으로 여름이 이미지가 물씬 풍긴다.

<작품 8-1>, <작품 8-2>, <작품 8-3>, <작품 8-4> 는 돌하르방의 이미지를 작게 표현한 작품으로 얼굴표정 등에서 순수함을 찾을 수 있고 <작품 8-5>, <작품 8-6> 은 강아지의 느낌을 표현한 작품으로 수공성형의 운치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또한 <작품 9-1>, <작품 9-2>, <작품 9-3>, <작품 9-4>, <작품 9-5>, <작품 9-6>, <작품 9-7>, <작품 9-8>, <작품 9-9>, <작품 9-10> 은 친구의 얼굴을 관찰한 후 두상을 위주로 속을 파서 만든 작품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입체표현에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②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성과정에서 많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조되면서 나타나는 수축현상이 안과 밖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태를 크게 만들면 그 내부를 공구를 이용하여 파내야 한다. 내부를 파내는 과정에서 형태가 찌그러질 수 있으므로 약간 건조된 상태가 좋다.

③ 다양한 수업 모형 제시

〈표 13〉 다양한 수업 모형

수업재제	수업목표
동물모양 만들기	상상의 동물, 집에서 기르거나 주위에서 보는 동물을 만들 수 있다.
친구 얼굴 만들기	친한 친구의 얼굴을 만들 수 있다.
식물모양 만들기	꽃, 나무 등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토우 만들기	흙으로 빚어서 인형을 만들 수 있다.

2) 정인지체아를 대상으로 한 도예활동의 교육적 의의

정인지체 학생에게 있어 도예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면 감각·운동 기능 발달을 통한 신체적 능력을 신장시켜, 직업 전 교육으로 적합하며, 주의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한편 도예활동은 창조적이고 입체적인 조형 활동으로 미적 감각을 길러주고, 작품 완성을 통한 성취감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 특히 여러 가지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어 정인지체 학생들이 흥미롭게 작업에 다가갈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심성의 치료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점토는 학생들에게 원초적 체험을 하게 해주는데, 촉각에 의해 행해지는 표현은 시각과 촉각이 결합된 교육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⁶⁴⁾ 도예 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현력을 길러준다

마음은 말과 표현만으로 모두 나타내기는 어렵다. 숨어 있는 마음을 표출하는데 마음속 깊이 간직된 생각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과 글은 자꾸 훈련할수록 사고가 넓어지고 그 내용이 풍부해지듯이 표현능력도

64)오정현(1996), 「미술교육을 위한 유아 창작공예」, 형설출판사, pp.20~23.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 경험을 자주 가짐으로써 개발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점토를 이용한 조형 활동은 훌륭한 자신의 표현 방법이다. 춤은 몸으로, 글짓기는 글을 통해서 표현 하지만 조형 활동은 말 못하고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 정서 발달을 돕는다.

생후 2년이 채 못 되어서 유아는 애정, 미움, 공포, 불만 등의 정서가 형성된다. 어린이들은 오히려 성인보다도 더욱 빈번하게 기쁨이나 슬픔, 사랑과 미움 등의 정서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고통, 상처가 있는 학생들은 가능한 빨리 그러한 감정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조형 활동은 바로 이런 학생들의 아픈 감정을 건설적으로 드러나게 해준다. 어휘가 부족한 정인지체아들은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보거나 점토를 만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쌓였던 불쾌한 감정이 씻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 특수아의 심리치료법으로 예술 치료(Art Therapy)는 점토를 주무르면서 형태를 만들어 보고 핑거페인팅(Fingerpainting)등의 조형 활동을 통해서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는 심리적 갈등을 발산시켜 주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카타르시스(Catharsis) 효과는 다만 특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조형 활동의 경험은 정신적 긴장이나 갈등을 정화시켜주고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창조성을 길러 준다.

창조성이란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 생각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그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것은 남의 물건이나 생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만들어내는 능력인 것이다. 도예활동은 공간의 확대에 의한

사고의 확대에 기인하여 관찰력,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자신감 및 창조적 조형 능력을 신장시킨다.

4)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사회성 발달은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여 재미있게 공동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의사교환과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터득하게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 생각,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도예활동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대인 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사회성발달을 돕는데 크게 공헌하게 된다.

5) 인지 발달을 돕는다.

인지 발달이란 인간의 내면적 요인이 외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이 견해이다. 피아제(J·Piaget)는 외적인 자극을 동화와 조절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림을 그리거나 3차원의 입체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마음의 상태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조형 활동은 사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의식 및 무의식을 조형 활동으로 표현하려면 생각이 구체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은 인지발달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6) 신체 발달을 돕는다.

도예활동은 사고의 변화뿐만 아니라 손, 팔, 눈 등을 다 움직여야 한다. 점토를 주무르고 만드는 과정은 소근육의 발달과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신체 각 부분의 기능과 조화로운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점토 조형 활동은 학생들의 정신적 측면의 발달은 물론 신체적 기능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7)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기존의 도화지 위에 해왔던 평면 작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입체표현에 흥미는

있지만 처음에는 다소 두려워하며 자신감 없어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숙달되면 개성적인 표현과 자유로운 사고를 통한 작품의 제작으로 입체표현에 뛰어난 기량을 보인다. 처음 점토를 접했을 때 점토의 성질을 이해시키고 직접 주무르고 손으로 만지면서 점토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 결과물 보다는 작업과정에서 성실성과 끈기가 있는 학생을 칭찬하고 바람직한 작업태도를 인지하도록 하며 각자의 개성을 찾아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자기 작품에 성취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떠한 주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하지만 표현력이 미흡하므로 포기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이때 세심한 지도와 기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최대한 창의적인 작품을 창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코일링(Coiling)성형에서는 코일 만들기의 숙달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에는 학생들이 코일 만들기에 어려움을 느껴 손 감각이 미숙한 학생은 쉽게 싫증을 느끼게 된다. 이때 손바닥을 이용해 고르고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시간을 두어 익숙해지도록 지도한다. 하지만 너무 오래 점토를 밀고 만지작거리면 체온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여 코일이 갈라지거나 주저앉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너무 오랫동안 점토를 밀고 만지작거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마무리 단계 이전에 가급적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흙 판으로 만들기는 밀대를 이용해 판을 밀 때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충분히 때려서 퍼준 후 밀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판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건조 과정에서 갈라질 위험이 크므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판을 자른 부분이 날카로우 손을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건조하기 전에 스펀지를 이용해 다듬어 주도록 한다.

파내어 만들기는 원하는 형태를 만든 후 건조 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업에 임하지 않으면 너무 굳어 속을 파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자름 줄을 이용하여 형태가 변형되지 않게 절단하고 내부를 파낼 때는 두께가 일정하게 하여야 소성과정에서 깨질 위험이 적다.

IV. 결 론

현재의 미술 교육은 미술을 통한 정서함양과 창조적인 표현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인간의 인격발달을 돕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기능성 보다는 미적인 경험을 통한 미술가적 품성을 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른 교과에 비해 융통성과 다양성이 많이 허용되는 도예활동을 통해 장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이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잦은 실패와 학습된 무기력으로 표현의 곤란을 겪는 정인지체아들에게 흙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표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정인지체아들이 도예의 전 과정을 이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도예교육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표현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수공 성형을 중심으로 수업모형을 연구하였다.

도예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수업모형을 만들어 실제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인지체아들은 세부적 표현력이 부족하였지만 제작하는 과정에서 형태의 크기와 위치, 모양에서 덧붙이거나 떼어내기, 파내기 등이 가능하였고 각자가 생각하는 형태를 개성 있게 표현하면서 풍부한 상상력, 정서적 안정감, 조형감각, 창의성 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점토를 다루는데 커다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어 수업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은 자기 표현력이 향상되었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착과 성취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그들의 작품은 내면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학생들은 점토를 만지고 두드리고 주무르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긴장이 완화 되고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

감을 보였다. 또한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근육의 발달을 촉진시켜 신체의 각 부분의 조화로운 발달에 효과적이었다.

둘째, 각자의 개성에 맞는 표현 방법을 찾아 지도하여 처음에 표현력이 미흡한 학생들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수업에 흥미를 느껴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더욱이 수업이 거듭될수록 표현활동이 독특하고 다양해지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도예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셋째, 가장 기초적인 기법부터 조형 활동을 체험하면서 점토에 대한 친근감이 조성되었고 도예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 및 사물에 대한 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주제에 따른 작품제작은 표현 욕구를 증가시켜 조형감각 및 창의적인 자기 표현력이 신장을 가져왔다. 특히 작품을 통하여 자기만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성취감을 갖게 하였고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면서 서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다섯째, 흙으로 빚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도자 작품은 부서지거나 깨지기 쉬워 보관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신지체아들에게 바람직한 도예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신지체아들은 여러 면에서 그들 간에 많은 개인차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능력에 맞도록 개별화된 교육 목표를 가지고 개별적인 지도가 직접 적용 되어야 한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칭찬과 강화를 주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좌절을 경험한 정신지체아들이 작품의 완성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미부여는 자기 표현력을 극대화시키고, 다른 활동들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자기결정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작품의 완성에만 집착해서 학생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도예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출해 내려했던, 정신지체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자기 표현력의 신장과 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이라는 목표는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인지체아들의 제한된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최고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교사의 진정한 자세라고 할 때, 그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표현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는 정인지체아들에게 있어 도예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위축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며, 비비고 두드리고 뭉치는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자기표현 능력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 또한 탄탄하게 서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부(1996), 「공예실습」, 서울산업대학교 산업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3), 「공예」, 서울산업대학교 국정도서 공예 교과서 편찬위원회.
- 교육부(1996), 「정신지체 특수학교 예능 교사용 지도서」, 국정교과서.
- 구분서외(2004),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 김영옥외(2006)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 김영학(1989), 「미술교육」, 대원 도서출판사.
- 김 정(1979), 「유아의 묘화 분석」, 백록출판사.
- 김 정(1982), 「아동화의 이해」, 창지사.
- 김 정(1984),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 진단」, 교육과학사.
- 김 정(1997), 「세계미술교육」, 예경.
- 김정권, 한현민(1997),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특수교육.
- 김춘일(1990), 「아동미술론」, 미진사
- 김춘일외(1996), 「재미있는 조형 놀이」, 미진사.
- 박은혜외(2004),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학지사
- 서길용(1991), 「도자실기」, 조형사.
- 이규선의 (1994),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이규선의(1997), 「유아미술교육학」,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 이소연, 박은혜공저(2003), 「특수아동 교육」, 학지사.
- 이태영, 김정권공저(1982), 「정신지체아의 심리」, 형설출판사.
- 안영기외(1990), 「꾸미기와 만들기」, 미진사.
- 오정현(1996), 「미술교육을 위한 유아 창작공예」, 형설출판사.
- 임영방(1985), 「미술교육 I」,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엄광섭(1984), 「조형재료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염태진(1986), 「유아교육을 위한 창작 공예」, 창지사.
- 윤용이(1996),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교재.

- 백은희(2005), 「정신지체 이해와 교육」, 교육과학사
- 최중옥외(2002). 「정신지체아 교육」, 양서원
- 한길홍(1989), 「도자 공예」, 서울산업대학교출판부.
- I, 그레고리(1999), 「도자조형」, 김순배 역(1999), 진우.
- 글렌 C·넬슨(1990), 「도자예술」, 임무근·신광석 역(1990).
- Lowenfeld and Brittain(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미진사.
- 허버트리드(2001), 「조각이란 무엇인가」, 이희숙 역(2001), 열화당.
- Belmont, J. M. (1996), Long-term memory in mental retard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LeonLoyal Winslow(1942), Art in Elementary Education(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Inc.
- Polloway, E. A & Smith, J. E 1982). Teaching language skills to exceptional learners,
Denver: Love
- 〈논 문〉
- 권후범(1997), “도예교육을 위한 수업모형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정희(2004), 도예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조형능력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현장특수
교육연구논문, 한국특수교육 총 연합회.
- 김성민(2005), 도예활동을 통한 정신지체 학생의 수업참여 태도와 자아 존중감의 변화가능
성 탐색,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나(2001), 소조활동을 통한 자폐아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
육대학원.
- 김재호(1985), “점토공작이 아동의 창의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 교
육대학원
- 김재호(2001), 점토를 이용한 아동미술의 표현방법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청자(2000), 흙 놀이를 통한 도예지도의 제안 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 대학원.
- 류정민(2003) 도예프로그램을 통한 조형요소와 조형원리 지도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학교 교육대학원.

- 박현선(2004), *중등미술교육에서 도자공예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길모(19940), *교육가능정신지체아의 묘화발달특성*,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교육대학원.
- 손현숙(2004), *집단 소조활동이 정신지체인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환(2002), *초등미술교육에서 창의성 신장에 관한연구-도예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진혜(2004), *점토를 이용한 미술치료가 정신지체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 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 대학원
- 이창림(1995), “미술의 기능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5호.
- 오정현(1984), “아동미술교육을 위한 Arts Play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원계선(1995), *찰흙 교수방법에 따른 찰흙활동의 효과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성수(1991), *어린이 찰흙작품의 분석과 지도방법 개선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찬국(2003), *체험적 입체조형교육을 위한 재료연구*,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27호
- 한영희(2003), *미술치료를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관한연구*.
- 홍혜자(1987), “유아의 그리기 및 찰흙활동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기타문헌〉

- 안중호(1977), 「공산성」, 제12집.
- 전진희(1997) “도예와 조각” 『월간도예』, 7월호, 월간미술사..
- Gottlieb, J & Budoff, M (1973). Social acceptability of retarded children in nongraded schools differing in architectur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 Borkowski, Go, & Day, J.d.(1987), *Cognition in special children: Comparative approach to retardation, learning disabilities giftedness*, Norwood: Ablex publishing co.
- Healey, K.N., & Masterpasqua, F. (1992). Interpersoncy among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Abstract>

A Study of Ceramic Art Education for mentally retarded children

Ko, Bok-Yeon

Fine Art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Min-Seock

Every human being has an innate desire to express themselves that originates from unlimited curiosity toward the outside world. The most basic action to expressing human emotions and feelings can vary extensively by age and individual inclination. Fine arts education is essential to human beings in helping them express their emotions and feelings.

Mentally retarded children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express their emotions due to linguistic handicaps, so fine arts education is especially helpful for such children to express themselves in other ways. Such education promotes physical,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through a variety of fine arts activities and can become a very important medium of communication that ultimately improves the ability of the mentally-retarded to express themselves. fosters creativity and builds self-confidence. In addition, fine motor skills can be improved while at the same time it contributes to students' psychological stability because it offers therapeutic approach too.

Therefore fine arts activities that allow hands-on activities appropriate for the interests and experiences of mentally-retarded children and promote non-linguistic avenues of free expression are needed to help the students feel a sense of achievement because such activities can provide expressive methods, educational content and

hands-on experience of material proper for their special characters.

Ceramic arts activities help develop children's potential for artistic expression. These activities help retarded children make coherent thoughts from their ego center by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inner worlds in an easy and interesting way. Thus they are very useful in understanding their activities to make shapes derived from their ego centers. Moreover these activities improve motor skills through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the senses and movements, assist nature-friendly emotional development through exposing students to natural materials such as clay, and can greatly improve students' concentration, cognitive ability and creative expression by allowing the mentally retarded to enjoy artistic expression and playing.

In this study, mentally retarded children were encouraged to freely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using clay. More importance was placed on the creation process than the artistic result, so students were encouraged to simply express themselves artistically. This gave students a sense of achievement when their ceramic art works were complete. In addition, the project sought to reinforce the positive feelings that students experience while making art in the hopes that this would motivate them to continue their creative expression.

The author applied an original teaching model in an actual school setting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students were able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non-verbally while touching, patting and manipulating clay, thereby relieving their tension and promoting students' emotional stability.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small muscles associated with fine motor skills facilitated in the course of forming shapes aided their harmonious physical development.

Second, students who had been insufficient in their expressive ability regained self-confidence and showed renewed interest in school lessons. Their attention span and willingness to actively express in class were heightened. That is because the ceramic art program was tailored to the needs of each student's specific character and organized respective expressive methods.

Third, students were able to experience clay molding firsthand at the level of basic techniques, thereby resulting in an increased familiarity with clay and a heightened

interest in ceramic art.

Fourth, creating art works with themes increased students' creative interest, thereby enhancing clay-molding ability and their creative talent.

Fifth, they learned the importance of safekeeping ceramic art works which are fragile and break easily, and also gained love and a sense of achievement for creating art on their own.

From the results stated above it can be seen that teaching methods suitable for normal children can be applied equally well to mentally-challenged children. In conclus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special education field is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precisely and finding ways of limitlessly reflecting students' conceptual faculties, imagination, thoughts, power of observation and emotional capacity through customized teaching methods tailored to each student's abilit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2006

부 록



〈부록〉 도예교육 활동의 결과물

1. 빚어 만들기



〈작품 1-1〉 찻잔 · 18세 · 여



〈작품1-2〉 그릇 · 19세 · 남



〈작품1-3〉 찻잔 · 17세 · 여



〈작품1-4〉 찻잔 · 17세 · 남



〈작품1-5〉 수반 · 18세 · 여



〈작품1-6〉 촛대 · 17세 · 남

2. 흙 줄 말아서 만들기



〈작품 2-1〉 그릇 · 19세 · 여



〈작품 2-2〉 접시 · 18세 · 남



〈작품 2-3〉 필통 · 17세 · 남



〈작품 2-4〉 바구니 · 19세 · 여



〈작품 2-5〉 투각 통 · 19세 · 여



〈작품 2-6〉 투각 통 · 18세 · 남



〈작품 2-7〉 원통 · 19세 · 여



〈작품 2-8〉 흙 줄 장식 · 20세 · 남



〈작품 2-9〉 조명등 · 19세 · 남



〈작품 2-10〉 조명등 · 18세 · 남



〈작품 2-11〉 장식 통 · 19세 · 여



〈작품 2-12〉 장식 통 · 18세 · 남

3. 장신구 만들기



〈작품 3-1〉 헤어밴드 · 18세 · 여



〈작품 3-2〉 목걸이 · 17세 · 여



〈작품 3-3〉 친구 얼굴 · 18세 · 남



〈작품 3-4〉 돌하르방 · 19세 · 남

4. 흙 판에 부조로 표현하기



〈작품 4-1〉 우리가족 · 18세 · 남



〈작품 4-2〉 내동생 · 19세 · 여



〈작품 4-3〉 내 얼굴 · 18세 · 여



〈작품 4-4〉 내 얼굴 · 19세 · 남



〈작품 4-5〉 돌하르방 · 18세 · 여



〈작품 4-6〉 소나무 · 18세 · 여



〈작품4-7〉 협동작품



〈작품 4-8〉 협동작품.

5. 흙 판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 만들기



〈작품 5-1〉 접시 · 19세 · 남



〈작품 5-2〉 접시 · 19세 · 여



〈작품 5-3〉 집 · 19세 · 여



〈작품 5-4〉 사각 도형 · 20세 · 남

6. 무늬 찍어 나타내기



〈작품 6-1〉 화병 · 17세 · 여



〈작품 6-2〉 화병 · 19세 · 여



〈작품 6-3〉 화병 · 17세 · 여



〈작품 6-4〉 거옥대 · 17세 · 남

7. 테라코타 만들기



〈작품 7-1〉 우리아빠 · 20세 · 남



〈작품 7-2〉 자전거 탄 소년 · 17세 · 여



〈작품 7-3〉 꽃 · 20세 · 여



〈작품 7-4〉 바닷가에서 · 17 · 남



〈작품 7-5〉 내 동생 · 20세 · 남



〈작품 7-6〉 바닷가에서 · 17세 · 남

8. 인형 만들기



〈작품 8-1〉 돌하르방 · 18세 · 여



〈작품 8-2〉 돌하르방 · 19세 · 남



〈작품 8-3〉 돌하르방 · 19세 · 여



〈작품 8-4〉 돌하르방 · 18세 · 남



〈작품 8-5〉 강아지 · 17세 · 여



〈작품 8-6〉 강아지 · 18세 · 남

9. 속 파서 만들기(친구 얼굴 만들기)



〈작품 9-1〉 친구 · 18세 · 여



〈작품 9-2〉 친구 · 18세 · 남



〈작품 9-3〉 친구 · 20세 · 여



〈작품 9-4〉 친구 · 17세 · 남



〈작품 9-5〉 친구 · 18세 · 여



〈작품 9-6〉 친구 · 17세 · 여



〈작품 9-7〉 친구 · 19세 · 여



〈작품 9-8〉 친구 · 20세 · 남



〈작품 9-9〉 친구 · 18세 · 남



〈작품 9-10〉 친구 · 20세 · 여